

25일 Market Index	
코스피 2710.65 (-48.06)	코스닥 797.29 (-16.96)
금리 (연율) 3.020 (-0.026)	환율 (원/달러) 1385.25 (+1.45)



동학개미 이겼다... 금투세 폐지 상속세 자녀 공제 5억으로 확대

2024 세법개정안

1400만 개인 투자자 보호 차원
현행 부과 양도소득세 체계 유지

상속세 최고세율 40%로 하향
다자녀 가구 상속세 부담 완화

정부가 금융투자소득세의 폐지를 추진하기로 했다. 내년 1월1일 시행 예정인 이른바 '금투세'는 주식매매 차익 등에 20~25%의 세금을 매기는 제도이다. 또 낡은 세제의 개선 방안으로, 상속·증여세 부담의 큰 폭 완화를 제시했다. 상속세 공제액을 자녀 1명당 5억원까지 확대한다는 방안을 꺼내 들었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관련기사 2면〉

기재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언론설명회에서 금투세 폐지와 관련 "자본시장 활성화와 국내 1400만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한"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현행 주식 등에 부과하는 양도소득세 체계의 유지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금투세 폐지

를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아울러 낡은 세제를 정비해 경제의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했다. 기재부는 "약 25년간 유지해 온 상속세율, 과세 표준을 조정하겠다"며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 상속세 최고세율을 40%로 하향 조정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현행 최고세율은 50%(30억원 초과)다. 반면, 가장 낮은 10% 세율이 적용되는 기준인 1억원 이하를 2억원 이하로 상향한다. 현재 1억~2억원 사이는 20%를 적용하고 있다.

이에 더해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을 현행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까지 대폭 확대한다. 이를 통해 "중산층, 특히 다자녀 가구의 상속세 부담을 덜겠다"고 기재부는 밝혔다.

세법 개정을 통해 출생 위험에 대응하고, 민생경제 회복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신혼부부에게 최대 100만원을 공제하는 결혼세액공제를 신설한다. 배우자에게도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지원해, 결혼 가구의 주택 마련 기회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소기업 소상공인 대상 노란우산공제 납입금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100만원 상향하고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도 1년간 연장 적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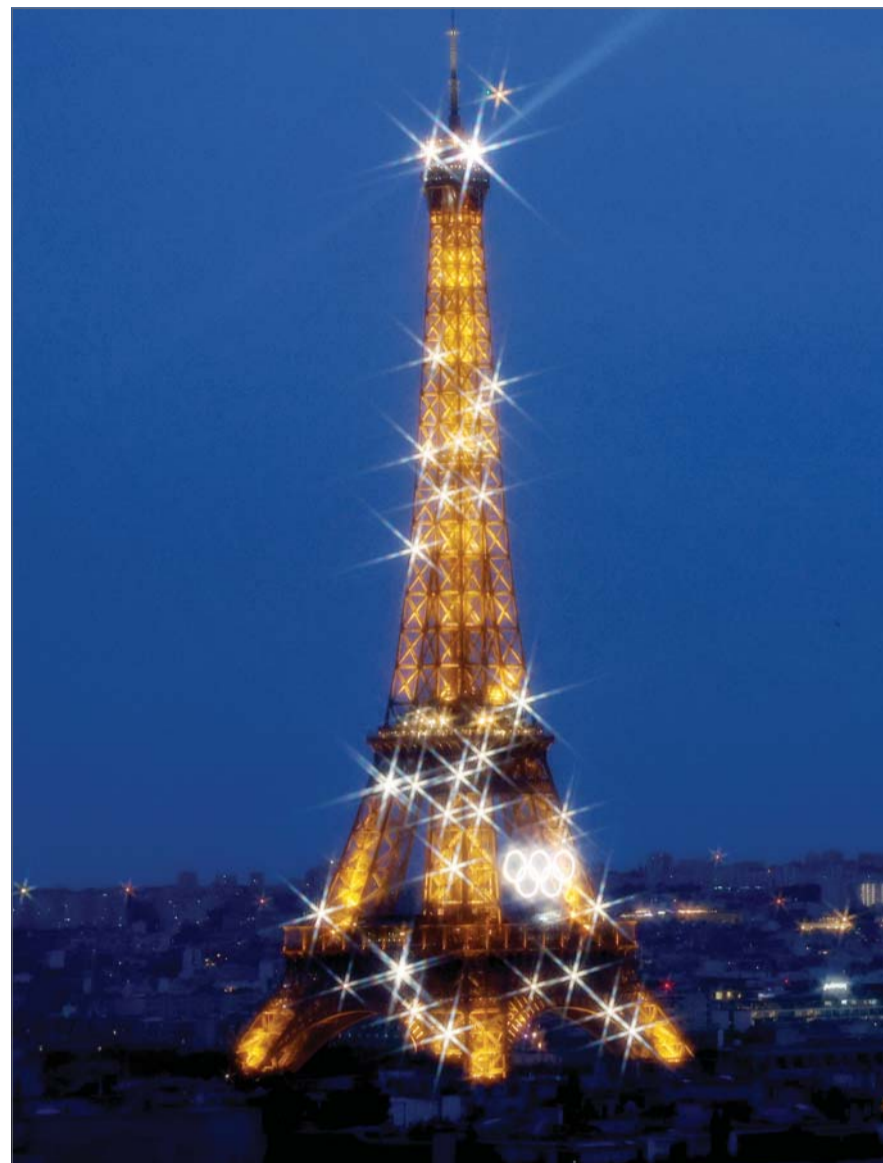
이번 개정안에는 전통주 산업 촉진을 위한 주세 경감방안도 담겼다. 경감 대상 제조자를 현행 발효주 500k l 이하, 증류주 250k l 이하에서 각각 700k l 이하, 350k l 이하로 확대한다. 또 탁주 제주 시 첨가 가능한 원료에 향료·색소를 추가하기로 했다. 현재 향료와 색소 첨가 시 기타주류로 분류돼 주세가 높지만 개정되면 세율이 낮은 탁주 적용을 받게 된다.

기재부는 "향후 5년에 걸쳐 약 4조 4000억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고 했다. 하지만 내년 이후에는 수출 증가에 따른 기업실적 호조가 예상되며, 세입 여건도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기재부는 이번 개정안을 이달 26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8월27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후 9월2일 이전에 정기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기재부는 이번 개정안을 이달 26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8월27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후 9월2일 이전에 정기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기재부는 이번 개정안을 이달 26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8월27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후 9월2일 이전에 정기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기재부는 이번 개정안을 이달 26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8월27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후 9월2일 이전에 정기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올림픽 개막 앞둔 파리의 밤 2024 파리 올림픽 개막을 이틀 앞둔 24일(한국시간) 밤 프랑스 파리 에펠탑에 오륜마크가 빛나고 있다. /뉴시스

M-커버스토리

부동산 PF發 연체율 상승 업황악화에 M&A도 표류

위기의 저축은행

작년 79곳 당기순손실 5999억
올 1분기도 1543억 역대급 적자
대손충당금 50% 가까이 늘려

고금리 지속과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여파로 저축은행이 위기를 맞고 있다. 부동산 시장 침체에 따른 부동산 PF발 연체율 상승 탓에 건전성도 나빠졌다. 주먹거리인 리테일(소매금융) 규모도 쪼그라들면서 올해 경영 목표는 '위기 극복'과 '생존'에 방점을 찍고 있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저축은행 79곳의 당기순손실은 5999억원이다. 앞선 2022년 1조 5622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거두면서 호황을 누렸지만 1년 사이 대규모 적자로 전환했다. PF 손실에 대비하면서 대손충당금을 1년새 50% 가까이 늘린 영향이다. 지난해 저축은행의 대손충당금 잔액은 3조8731억

원이다.

9년 만에 적자를 기록한 가운데 그 여파가 올해까지 이어지고 있다. 올 1분기에는 1543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역대급 한파'로 불린 지난해 동기(-527억원) 대비 1000억원 넘게 적자가 늘어났다. 업계에서는 올 상반기 손실 규모를 5000억원 수준으로 추정하고 있다. 일부 신용평가사에서는 올해 저축은행 손실 규모를 2조원대로 관측한 보고서도 공개했다.

연내 저축은행 인수합병(M&A)도 물 건너간 분위기다. 업황 개선 조짐이 나타나지 않는 만큼 부실만 떠안을 위험이 높아져서다. 지난해 4대 금융지주 가운데 유일하게 수도권 저축은행을 보유하지 않은 우리금융지주는 상상인저축은행인수를 위해 실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본격적인 매매논의까지 진행하지 못한 채 무산됐다.

〈4면에 계속〉

/김정산 기자 kimsan119@

정의선 결단력 통했다... 현대차, 분기 최대 실적

2분기 영업이익 4조2791억 기록
매출 45조... 전년 대비 6.6% 늘어
친환경 고부가가치 중심 판매 효과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45조205억원, 4조2791억원' 역대급 실적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현대자동차가 고부가가치 차종 중심 판매 확대로 2분기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매출만 45조원을, 영업이익은 4조2800억원 가까이 늘어났다. 현대차는 25일 실적 발표 콘퍼런스를 열고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4조2791억원으로 지난해 2분기보다 0.7%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매출은 45조206억원(자동차 35조2373억원, 금융 및 기타 9조7833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6.6% 늘었다.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분기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이다. 종전 최대 실적은 매출 42조2332억원, 영업이익 4조2483억원을 기록한 지난해 2분기였다. 올해 2분기 순이익은 4조1739억원으로

24.7% 늘었다. 영업이익률은 9.5%로 집계됐다.

현대차는 고수익 차종을 중심으로 한 판매 믹스(차량용 구성비율) 개선과 환율 효과 등으로 역대 분기 최대 실적으로 달성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상반기 전체로는 매출 85조6791억원, 영업이익 7조8365억원을 기록했다.

반기 기준으로 매출은 작년 상반기 실적(80조32억원)을 뛰어넘는 역대 최대 기록이다. 영업이익은 기존 최대 기록인

작년 상반기(7조8906억원)에 살짝 못 미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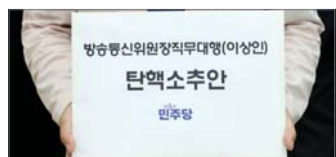
현대차 관계자는 "고금리 지속에 따른 수요 둔화와 주요 시장 경쟁 심화로 인한 인센티브 상승 추세 등 불확실한 경영환경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고부가가치 차종 중심 판매, 환율 효과 등을 바탕으로 영업이익률 9% 이상의 안정적인 수익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대차가 이같은 실적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었던 배경에는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의 '결단력과 추진력'이 자리하고 있다. 정의선 회장은 프리미엄 브랜드 제네시스와 친환경차(하이브리드·플러그인 하이브리드·전기차·수소전기차) 경쟁력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최근 글로벌 전기차 시장 수요가 둔화하고 있지만 정 회장은 글로벌 생산 거점 확대 등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차세대 하이브리드 시스템 개발도 그 중 하나다.

〈2면에 계속〉

/양성운 기자 ysw@

뉴스터미널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野 '이상인 탄핵안' 25일 본회의 보고 당론 추진 /사진 뉴시스
▲ 與 김종인 "추경호가 한동훈보다 우위? 똥단지같은 소리"

▲ 방미 통일장관 "김정은·트럼프 대화 재개, 회의적 시각 많다"
▲ 국세청,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상속세 과세 검토



▲ 조국혁신당, 윤 거냥 '탄핵추진위' 출범... "정치적·법적 탄핵 투쟁" /사진 뉴시스
▲ 정부 "전공의 모집 '보이콧' 발생하면 법적 조치 강구"

상속세 완화에 세수결손 4.3조 가능성... “합리화 지속 노력”

(5년간)

2024 세법개정안 세부내용

10억초과 상속세 상한 40% 추진
상속세 공제액 자녀 1명당 5억
현행 5000만원서 900% 상향
주주보유 주식 할증평가 폐지
기업 승계 과도한 세부담 완화

2024 세법개정안 주요내용

상속·증여세율 및 과표 조정

과세표준	1억원!	5억원!	10억원!	30억원!	30억원!
현재 세율	10%	20%	30%	40%	50%
과세표준	2억원! <td>5억원! <td>10억원! <td>30억원! <td>30억원! </td></td></td></td>	5억원! <td>10억원! <td>30억원! <td>30억원! </td></td></td>	10억원! <td>30억원! <td>30억원! </td></td>	30억원! <td>30억원! </td>	30억원!
개정 세율	10%	20%	30%	40%	-

상속세 인적공제 개요

기초 공제	1997년		현행	
	2억원			
자녀·연로자	1인당 3000만원	1인당 5000만원	→ 5억원(개정)	
미성년자	20세까지 연수 x 500만원	19세까지 연수 x 1000만원		
장애인	75세까지 연수 x 500만원	기대여명 연수 x 1000만원		

/뉴시스 그래픽

25일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며 정부는 이른바 증시 ‘개미’의 수를 공개했다. 1400만 명이라고 공식적으로 밝힌 것이다. 2010년대 700만 명 안팎이던 국내 개인투자자수가 코로나19를 거치며 크게 늘어났다는 소문은 이미 파다했다. 1400만은 총인구의 27.3%, 20세 이상 인구(4300만 명)의 32.3%를 차지한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성인 3명 중 1명이 주식에 손대고 있고, 기재부는 브리핑에서 이들에 대한 보호를 폐지의 명분으로 내세웠다. 일단 시장에 백기를 든 것으로 풀이된다.

총선은 이미 지나갔고 다음 지방선거

는 2년이나 남았다. 문제는 점점 다가오는 시행일이다. 금투세는 내년 1월1일 시행에 돌입할 예정이고, 올해 세법개정안을 통한 제동이 마지노선이라고 본 것이다. 금투세의 기본 골격은 ‘주식 팔아서 돈 번 사람은 세금으로 20% 넘게 내라’는 것. 반면 많은 사람에게 대선 당국이 신경 써주지 않는다. 매매에 대한 양도소득세와는 별도로 부과한다. 지난 정부에서 생겨난 이 제도는 수년간 거센 반발을 야기했다. 상황은 바뀌는 모양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최근 ‘금투세 완화’를 꺼내 들었다. 폐지 논의가 국회에서 급물살을 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금투세와 더불어, 정부는 상속세 및 증여세를 크게 완화한다는 데 이번 개정안의 초점을 맞췄다. 30억 원을 초과할 시 적용하던 50% 세율을 40%로 낮춘다. 특히 10억 초과이든 30억 원 초과이든 일률적으로 40% 상한 적용을 추진한다. 게다가 상속세 공제금액을 자녀 1명당 5억 원으로, 현행 5000만 원에서 무려 900% 상향 조정한다. 기재부는 물가 자산 등 여건 변화를 반영하고, 과도한 세부담 완화를 위함이라고 했다.

문제는 세수 결손 가능성이 또다시 불거진다는 데 있다. 이날 기재부가 추산한 연도별 세수효과에 따르면 향후 5

년간 세수 4조3000억원이 줄어든다. 이중 상속·증여분에서 생기는 감소분만 무려 4조500억원에 달한다. 그것도 2025년(2조4000억원)과 2026년(1조6000억 원) 등 현 정부 임기 내에 전부 발생한다. 법인세와 소득세의 경우, 앞으로 5년간 각각 3600억 원, 4500억 원 감소할 것으로 봤다.

세 부담은 서민과 중산층에서 6200억 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어 중소기업이 -2300억 원, 고소득자가 -1600억 원, 대기업 -917억 원 등이다.

정부는 세수 감소를 인정하면서도 “낮고 오래된 세제를 변화된 환경에 맞춰 합리화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

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관련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한다. 중소기업을 졸업하더라도 기존에 받던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적용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 기업의 투자, R&D, 고용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도 강화할 방침이다.

기업 승계과정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최대주주 보유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를 폐지한다. 기업상속공제 적용도 확대한다.

정부는 또 밸류업·스케일업 우수기업에 대해 기업상속공제 한도를 2배로 늘린다. 특히, 기회발전특구 창업 및 이전은 공제한도를 폐지하는 등 전폭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그간 부가가치세 탈루 문제가 나타난 면세점 송객수수료에 대해서는 매입자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특례제도를 도입한다.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투자자 보호와 관계법령 시행성고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과세 시행시기를 2년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저출생수석에 ‘40대 워킹맘’ 유혜미 교수

尹 대통령, 저출생대응수석실 신설
“경제사회 구체적 변화 과제 제안
출산율 하락 늦추고 반등 이끌 것”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으로 임명된 유혜미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가 2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소감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저출생대응수석실을 신설하고, 초대 저출생수석으로 ‘40대 워킹맘’ 유혜미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를 임명했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저출생 콘트론타워로서 저출생대응수석실을 신설하기로 했다”며 “윤 대통령은 오늘부터 첫 수석으로 유 교수를 임명했다”고 전했다.

저출생수석이 신설되면서 대통령실은 ‘3실장 8수석(정무·민정·시민사회·홍보·경제·사회·과학기술·저출생)’ 체제가 됐다. 또 유 신임 수석 임명 확정으로 현 대통령실에서 유일한 여성 수석이 됐다.

유혜미 신임 저출생수석은 1977년생으로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경제학부를 졸업하고 한국은행에 입행했다. 이후 미국 유학길에 올라 로체스터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

주목을 받았다. 또 유 수석은 그간 언론을 통해 우리나라 저출생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육아비 보조 등의 해법과 대안의 필요성을 강조해온 바 있다.

유혜미 수석은 인선 발표 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출산율 하락 속도를 늦추고 반등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단기적으로 도움될 정책뿐 아니라 우리 경제 사회의 구체적 변화를 요구하는 과제들도 과감히 발굴하고 제안하겠다”며 “(저출생) 대책이 성과를 낸다고 하더라도 상당기간 생산연령인구의 감소가 불가피한 만큼 이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여러 대책을 면밀히 검토하고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저출생수석실에 인구기획비서관과 저출생대응비서관을 뒀다. 인구기획비서관에는 기획재정부 출신인 최한경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사무처장을, 저출생대응비서관에는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을 지낸 최중균 질병관리청 차장을 기용했다.

/서예진 기자 syj@



2분기 GDP 0.2% ↓... ‘깜짝성장’ 기저효과

한은, 실질 국내총생산 “작년보다 2.3% 상승, 서서히 개선 소비회복에 연간 2.5% 부합할 것”

올해 2분기(4~6월)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전 분기와 비교해 0.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분기(1~3월) 깜짝 성장을 이끌었던 민간소비와 건설투자가 부진한 영향이다.

한국은행은 하반기 고물가·고금리 추세가 완화되면서 민간소비가 회복되고, 수출호조세가 이어지며 연간 성장률 전망치(2.5%)에 부합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은행이 25일 발표한 ‘실질 국내총생산(속보)’에 따르면 2분기 GDP는 전분기와 비교해 -0.2%로 역성장했다. 이는 2022년 4분기 -0.5% 이후 최저치다.

신승철 경제통계국장은 “전 분기 예상보다 GDP가 반등하면서 상대적으로 2분기 감소폭이 크게 나타났다”며 “다만 1년 전과 비교하면 2.3% 상승해 성장률은 서서히 개선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반기별로 나눠보면 올해 상반기 GDP는 1년 전과 비교해 2.8% 성장했다. 반기별 GDP는 2022년 상반기 3.2% → 하반기 2.2% → 2023년 상반기 1% → 하반기 1.7% → 2024년 상반기 2.8%로 상승했다. 2022년 상반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2분기 GDP는 민간소비와 건설투자 등 내수를 중심으로 감소했다.

앞서 1분기 GDP는 민간소비와 건설투자 등 내수가 일시적으로 개선되며 깜짝 증가세를 보였다. 1분기 일시적으로 증가한 요인들이 본래 흐름을 되찾으면서 2분기 GDP가 감소했다는 설명이다.

민간소비는 교육 등 서비스 소비는 소폭 증가했지만 승용차, 의료 등 재화 소비가 부진하며 0.2% 감소했다.

건설투자는 주거용 건물건설과 토목건설이 모두 줄어 1.1% 줄었다. 설비투자는 자동차 등 운송장비가 늘었으나 반도체 제조용장비 등 기계류가 줄며 2.1% 감소했다. 아울러 2분기 GDP에는 수출만큼 늘어난 수입도 한 몫 했다.

수출은 자동차, 화학제품 등을 중심으로 0.9% 증가하고, 수입은 원유, 석유제품 등을 중심으로 1.2% 늘었다. 수출보다 수입이 늘며 GDP 감소세를 이끌었다는 분석이다.

신 국장은 “통상 우리나라는 수출만큼 수입이 증가해야 하지만 1분기까지 온화한 날씨로 원유, 천연가스 등의 수입이 줄어들며 수출만큼 수입이 늘어나지 않았다”며 “2분기 원유, 천연가스 등의 수입이 정상화되면서 전기대비 GDP가 감소했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전기차 캐즘... 하이브리드 중심 시장 공략

>> 1면 ‘정의선 결단력...’서 계속

현대차는 기존 1.6터보 가솔린 엔진 기반 하이브리드 시스템에 이어 보다 강력한 2.5터보 가솔린 엔진 기반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개발 중이다. 현재 개발 막바지 단계로 올 연말이나 내년 초 상용화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대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 팔리세이드 하이브리드 모델에 처음 적용할 가능성이 높다.

현대차는 친환경차 시장이 글로벌 전

기차 시장의 캐즘 구간 진입으로 하이브리드 중심으로 시장 공략에 나선다. 단 주요 국가들의 중장기 환경 규제 및 친환경 인프라 투자 증가에 따라, 중장기적으로는 전기차 수요가 친환경차 시장의 성장세를 이끌 전망이다.

현대차는 이와 관련해 ▲전용 전기차 브랜드 ‘아이오닉’의 라인업 확대, 캐스퍼 일렉트릭(해외명 인스터) 글로벌 론칭, 하이브리드 라인업 기술 개발 및 라인업 확대 등을 통한 친환경차 판매 제

고 ▲생산 및 판매 최적화를 통한 판매 극대화 ▲SUV, 고부가가치 차종 중심의 믹스 개선을 통한 점유율 확대 및 수익성 증진에 집중할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현대차는 주주 환원을 위한 2024년 2분기 배당금을 지난 1분기에 이어 주당 2000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전년 동기 배당(1500원) 대비 33.3% 늘린 금액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현대차는 시장과 약속한 주주환원 정책을 반드시 이행하고, 다양한 주주환원 정책을 적극 검토하며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양성운 기자 ysw@

환불 나선 위메프... 문 걸어 잠근 티몬... 소비자 혼란 가중

수백명 소비자 본사 항의 방문
위메프, 류화현 대표 현장 대응
티몬, 건물 폐쇄... 전화도 불통

“내부에서는 평화로운데 밖에서 넘 난리칩.”

일주일 전 티몬이라는 아이디로 블라인드를 통해 업로드된 글이다.

일주일 전이면 구영배 티몬 사장이 한국에 긴급 귀국한 시점이다. 정산 지연 사태가 최소 보름 전부터 벌어진 사태라고 쳐도 이 대목에서 티몬 내부 분위기를 대략 짐작할 수 있다.

현 사태를 놓고 위메프와 티몬이 큐텐의 같은 계열사라고 보기에는 극명히 상반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지난 24일 저녁부터 현시점까지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위메프와 티몬 본사 앞에서는 환불을 요구하는 수 백명의 피해자들로 붐볐다. 현장에서 피해자들은 강하게 항의하고 나섰다.

이에 위메프는 즉각 본사 재무팀이 나서 결제자 성함과 연락처, 예약번호, 상품명, 환불요청 수량 등을 수기로 받아 환불 처리를 진행했다. 중복으로 겹칠 것을 염려해 재빨리 온라인과 큐알 코드도 도입했다.

뿐만 아니라 25일 새벽 류화현 위메프 대표는 현장을 직접 찾아 “소비자 피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보상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의 언성은 높아지자 류화현 대표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소비자 환불자금을 충분히 준비해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며 “티



환불접수를 하기 위해 서울 강남구 위메프 본사에 몰린 소비자들이 줄서 있다.



위메프 본사에 붙여진 큐알코드. (최빛나·안재선 기자)

몬과 위메프를 합쳐 판매사에 돌려줘야 할 미정산 대금은 큐텐 차원에서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티몬과 공식 합의된 절차가 아니었기 때문에 2시간만에 중단했지만 이 대목

에서 류대표의 의지가 돋보였다는 평이 나온다.

현장에서 위메프 측은 본지와 인터뷰에서 “류 대표는 현장을 찾아온 티몬 피해자들에게 뭐라도 해야 한다며 환불 요청을 받아서 티몬측에 전달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반면, 같은날 티몬 본사 앞에선 정산받지 못한 판매자들과 환불을 요구하는 소비자 수 십명이 모여 강하게 항의하며 관계자와의 대화를 시도했지만 티몬 측은 일체히 현장 대응에 나서지 않았다.

실제, 지난 24일 티몬은 해당 건물을 폐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소비자들은 티몬 측으로부터 대응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그대로 위메프 본사로 발길을 돌린 것.

티몬은 지난 23일 오전 “현재도 환불은 계속 진행 중이다. 환불을 요청한 모든 고객에게 환불할 예정”이라는 답변



을 끝으로 현재까지 어떠한 대응도 전화도 받지 않고 자취를 감춘 상황이다.

이 같은 ‘나몰라라’ 식 대응으로 피해자들은 더욱 분노하는 분위기다.

대전에서 온 강 모씨(41)는 “불안해서 지방에서 새벽부터 올라와 우선 티몬 본사를 갔는데, 건물을 폐쇄했더라. 그래서 위메프 본사로 왔다. 나몰라라 식으로 경영을 하면 사태가 해결되나. 차라리 위메프처럼 잘못을 인정하고 재빠르게 대응한다면 화가나더라도 기다릴 수는 있다”고 울분을 토했다.

여론도 들끓고 있다. 대표가 직접 나서 소비자들에게 공식 사과하고 재빠르게 대응하는 위메프와 달리 티몬의 이 같은 나몰라라 식 경영은 이해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지난 18일 구영배 티몬 사장이 한국으로 긴급 귀국한데에도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다만 위메프의 류화현 대표는 티몬을

놓고 “위메프와 다른 법인이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이 사태를 위한 회의를 진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짧게 말했다.

위메프 측에 따르면 “우리도 티몬과 연락이 잘 되지 않는다. 알 수 없는 부분”이라고 선을 그었다.

일각에서는 현재 티몬의 내부 분위기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위메프의 내부 분위기에 비추어 봤을 때 혼란이 가중된 분위기는 양사 모두 비슷할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티몬이 자취를 감춘 데에는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논의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나몰라라하고 내버려 둘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다만, 여론과 소비자들의 질타는 피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위메프의 대응과도 비교될 건 뻔하다”고 지적했다.

(최빛나·안재선 기자 vitna@metroseoul.co.kr)

“큐텐 그룹사 차원 소비자 피해구제 총력”

류화현 위메프 대표 간담회

류 대표 환불과정 등 입장 표명
“최대한 빠르게 정상화 시킬 것”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가 소비자와 관계자 간 감정이 극한으로 치달다 보니 위메프 측은 25일 위메프 본사 회의실에서 긴급 기자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류화현 위메프 대표가 직접 나서 사태 처리 과정과 동시에 앞으로의 방향, 큐텐과 티몬의 입장을 전했다.

류 대표는 우선 긴급 기자간담회를 여는 것에 거듭 사과하며 “빨리 해결하고 정상화시키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류화현 위메프 대표가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들과의 일문일답.

-고객 피해 회복은 어떻게 보상할건가.

“우선 오늘은 환불 고객 센터에서 가장 급하게 원하시는 환불을 책임지고 완수하고 환불 이후에 때에 따라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피해들에 대해서는 저와 큐텐 그룹 논의 후 방안 마련 후 대응하겠다.”

-티몬 피해자들은 누가 책임지나.

“위메프가 직접적인 책임질 수 없는 상황이다. 신청서라도 전달해달라고 했



류화현 위메프 대표가 25일 긴급 개최한 기자 간담회에서 취재진들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최빛나·안재선 기자)

는데 아까 68명의 피해 접수를 받아 티몬측에 전달한 상황이다.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아 단독 진행한 일이다. 하지만 티몬 고객분들이 위메프 고객과 사고 날 것 같아서 현재 접수 중지한 상태다.”

-미정산 금액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

“위메프는 400억원 정도인 것으로 확인했다. 티몬은 잘 모르겠다.”

-자본 부족한 부분에 대한 해결책은 어떻게 풀건가.

“그룹사 차원에서 다같이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다. 위메프 단독으로 자본금을 확충하는 거는 한계가 있어서 그룹사 전체에서 하고 있다. 그 출처나 규모 등은 확정되는 데로 업데이트해 전

달할 예정이다.”

-큐텐의 상황은 어떤가. 구영배 큐텐 대표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구영배 사장에 대한 동선은 제가 알지 못하다. 큐텐이나 티몬의 상황까지 제가 파악하지는 못하고 있다. 위메프의 환불에만 집중하겠다.”

-비슷한 문제가 계속 발생할 것이라고 하는데.

“위메프에는 기획 개발 조직이 없이 사업, 운영, 마케팅만 있다. 그래서 새로운 편출 시스템이 2월 말에 도입이 됐는데 7월달에 나가는데 정산 비율, 저희가 부담하는 비율, 파트너스가 부담하는 비율 숫자 금액이 계산했던 것보다 훨씬 컸다. 전체 정산을 스톱하느냐, 그 오차가 큰 것만 스톱하느냐를 결정해서 저희가 390군데 스톱을 했었다. 그 과정에서 커뮤니케이션이 미숙했고 그러면서 이런 불안감이 좀 가중이 됐다”

마지막으로 류화현 대표는 “큐텐 그룹사 차원에서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오늘 같은 소비자 피해의 규제도 위메프만이 이런 게 아니라 티몬도 모두 동일하게 소비자 피해 구제가 1순위 소상공인 그다음에 영세 소상공인 피해 구제가 2순위 이런 식으로 같은 우선순위를 두고 일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다.”

(최빛나·안재선 기자)

공정위, 긴급현장 점검... 집단분쟁조정 준비

시장감시국 조사관 현장 투입

지금 불능 사태에 빠진 티몬과 위메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긴급 현장 점검에 나섰다. 조속한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해 한국소비자원에 전담 대응팀을 설치, ‘집단분쟁조정’ 개시 준비에 즉시 착수한다.

공정위는 25일 오후 2시 30분 서울 강남구 소재 티몬 본사와 대치동 위메프 별관 사무실에 시장감시국 조사관 각 5명, 6명을 투입했다고 밝혔다. 조사관들은 현장점검에서 주문을 취소한 소비자에게 대금 환불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재화-서비스 공급을 계약내용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전자상거래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본다.

앞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티몬·위메프에 대한 현장점검 방침을 밝혔다. 한 위원장은 “최근 티몬과 위메프의 대금정산 지연 문제와 관련해 공정위는 신속히 상황을 파악하고 대응방안을 적극 검토·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융당국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업해 소비자와 판매업체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근성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피해를 입은 소비자 규모와 거래 금액 등은 긴급 현장점검에서 상황을 살펴 정

확히 파악할 수 있다”며 “대금 정산 과정에서 누가 피해를 봤는지 구체적인 상황 등을 살펴, 법 적용 유무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티몬·위메프 건에 대규모 유통업법 적용은 어렵다고 보고 있다. 한 위원장은 “티몬·위메프와 판매업자 간 정산 지연 문제는 민사상 채무불이행 문제로 대규모유통업법 적용 대상은 아니다”며 “대금 정산 지연 문제는 금융당국에서 대응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안다”고 재차 밝혔다. 한 위원장은 전날 (24일) 국회 정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공정거래법으로 직접 의율하기 어렵다”고 말한 바 있다.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모기업 큐텐의 무리한 회사 합병이 문제를 키우지 않았느냐는 질문엔 “기업결합 심사는 경쟁제한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것”이라며 “큐텐 건의 경우 경쟁제한성이 8.35% 수준으로 조건없이 승인한 바 있다”고 했다. 이어 “인수회사 재무능력이 충분한지 여부는 경쟁제한성 판단 고려대상이 아니어서 판단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가 집단분쟁조정 개시 준비에 착수한 만큼 피해 보상이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다만, 아직까지 집단분쟁조정 신청 접수건은 파악되지 않았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저축은행, 수익성 회복 '전력투구'... 지점·인력감축 병행

건전성 확보 총력

하반기 리스크 낮추고 담보대출 주력
신사업 미루고 인력 등 효율화 박차
조달비용 증가에 고금리 예금 줄여
담보자산 늘려 점진적 업황 회복 기대

'보릿고개'를 벗어나기 위해 저축은행의 고군분투가 이어지고 있다. 인력과 점포를 정리하면서 군살도 덜어내고 있다. 방어적인 경영전략이 한계에 이르자 하반기에는 리스크를 낮추고 수익성도 꺾을 수 있는 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영업에 나설 전망이다.

저축은행이 앞다퉀 출시하던 고금리 예금상품도 자취를 감췄다. 급격하게 높아진 조달비용이 발목을 잡았기 때문이다. 통상 정기예금에 은행권 대비 연 1~2%포인트(p)의 가산금리를 적용했지만, 이제는 은행권과 유사한 수준의



ChatGPT에 의해 생성된 위기를 맞은 저축은행이 인력 구조조정 등 수익성 회복을 위해 주력하는 이미지.

예금금리를 유지하고 있다.

◆ 연간 임직원 400명 감소

올 1분기 기준 전국 저축은행 79곳의 임직원은 9764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분기 대비 462명 감소한 수치다. 그간 디지털전환(DT) 등 신사업을 예고하면서 2022년 6월 1만명대에 진입했지만 지난해부터 또다시 내리막길이다. 급격하게 나빠진 업황 탓에 신사업은 뒤로하고

인력 효율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비정규 직원의 감소세가 가파르다. 계약직 직원의 정규직 전환에 부담을 느낀 영향이다. 올 1분기 전국 저축은행의 정규직 직원은 8245명으로 전년 동기(8565명) 대비 3.73% 줄었다. 같은 기간 비정규직 직원은 142명 이탈한 787명으로 15.28% 감소했다.

특히 중소형 저축은행이 비정규직 인

력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모양새다. 대형사 정규직 퇴사자의 비중이 비정규직 퇴사자 대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상대적으로 열위한 저축은행이 인력 효율화 카드를 적극적으로 빼 들었다.

최근 1년간 상위 저축은행 5곳(SBO·OK·웰컴·한국투자·애규온저축은행)의 퇴사자는 259명이다. 전국 저축은행 퇴사자의 56.06%다. 이 중 정규직 퇴사자는 203명으로 전체 정규직 퇴사자의 63.43%(203명)을 차지한 반면 비정규직 퇴사자는 42.9%(61명)에 그쳤다.

영업점은 정리수순을 밟고 있다. 올 1분기 전국 저축은행의 점포 수는 271 곳이다. 전년 동기(280곳) 대비 9곳 감소했다. 지점과 출장소를 각각 6곳, 3곳씩 정리했다. 디지털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이참에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대형사 중에서는 SBI저축은행과 OK저축은행이 영업지점의 간판을 각각 2곳, 1곳씩 내렸다. 폐회저축은행은 10년간 유지하던 출장소 운영을 중단했다. 금융당국이 올해부터 저축은행 지점 확장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는 등 규제 완화를 시행했지만 비용효율화가 우선순위인 만큼 영업점 운영은 최소한으로 유지할 계획이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대형사의 경우 디지털전환에 따른 개발인력을 비정규직으로 채용했는데 관련 사업이 후순위로 밀리다 보니 재계약이 어려워졌다"며 "중소형사의 경우 여·수신 및 경영업무 등 최소한의 인력만 남았다"고 말했다.

◆ '조달비용 줄여라'... '금리 다이어트'

각 저축은행은 조달비용 줄이기에 매진하고 있다. 수익성 악화 요인으로 기준금리 인상 시기의 공격적인 자금조달이 지목되면서다.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이달 초 전국 저축은행 79곳의 정기예금(1년물) 평균금리는 연 3.66%다. 지난 2022년 12월(5.53%) 대비 1.87%p 줄었다. 해당 기간 예금금리 상단은 2~2.5%p 격차를 나타낸다.

이차 비용 낮추기에 우선순위를 둔 만큼 은행권과 저축은행 정기예금 금리 상단이 유사한 상황이다. 은행권에서 가장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예금상품은 NH농협은행의 'NH고향사랑기부예금'이다. 우대금리를 모두 받으면 연 3.

90%의 금리를 적용한다. 반면 저축은행권에서 가장 높은 금리를 지급하는 정기예금은 청주저축은행의 '벵벵정기예금'이다. 금리는 연 4.0%로 책정했다. 은행권 상단과 불과 0.1%p 차이다.

저축은행 정기예금의 매력력이 떨어진 만큼 수신잔액도 연일 감소세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5월 전국 저축은행 79곳의 수신잔액은 101조9185억원이다. 지난해 동기(114조5260억원) 대비 11.00%가량 쪼그라들었다. 지난해 1월을 시작으로 매달 감소한 수신 잔액은 올 4월 183억원 증가하면서 소폭 올랐지만 또 다시 내리막길이다.

◆ 하반기 담보대출 주력... 업황회복 시점은?

올 하반기 주요 저축은행은 주택담보대출 영업을 예고했다. 건전성과 수익성 제고가 동시에 요구되면서다. 당초 저축은행권에서는 업황 회복 시점을 기준금리 인하 시기로 점찍었다. 하지만 더 이상 외부 환경변화만을 기다릴 수 없다는 판단이다. 대출문턱을 서서히 내리겠다는 방침이다.

업계자산순위 1위인 SBI저축은행은 지난달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인하했다. 가산금리 조정을 통해 주담대 전체 금리를 낮췄다는 설명이다. 개인 신용대출 대비 안전한 담보 자산을 늘리면서 론 포트폴리오(loan portfolio) 안정화를 꾀하겠다는 것.

전문가들은 저축은행의 극적인 반등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한다.

박준태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준금리를 낮춘다면 점진적인 개선은 기대할 수 있으나 1년 넘게 한파를 겪고 있는 만큼 단기간 회복은 어려울 것으로 분석했다. 아울러 일부 저축은행의 부실 이드러나더라도 합병·정리 과정을 통해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이어 박 연구위원은 부실채권(NPL) 매각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시장 여건 개선 시기를 기다리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이다.

박 연구위원은 "국내 채권시장이 활성화돼 있지만 부실채권의 경우 매매량이 적은 편에 속한다"며 "고정비율의 적극적인 정리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말했다.

/김정산 기자 kimsan119@metroseoul.co.kr

KB 금융그룹 금융 파트너 세상을 바꾸는 금융

금융을 잘안다 보험을 잘한다

그래서
KB손해보험이다

보험도 결국 금융이니까!
금융을 잘 아는 KB가 보험도 잘 합니다
알면 알수록 보험은 KB손해보험입니다

자동차보험

건강보험

펫보험

자녀보험·태아보험

여행자보험

암보험

KB 손해보험

“기초체력으로 경영 안정성 확보”

» 1면 '위기의 저축은행'서 계속

인수합병 시장에서 저축은행 매물은 점점 쌓여가는 상황이다.

앞서 우리금융지주의 관심을 받은 상상인저축은행은 물론 애규온, OSB, 한화, HB, 민국, 조은저축은행 등이 잠재매물로 거론되고 있다. 대구·경북을 거점으로 운영하는 대원저축은행은 10년 가까이 시장에 나온 상황이지만 여전히 매각에 난항을 겪고 있다. 2~3년 전 저축은행이 호황을 맞았을 때 임직원 수 50명 이상의 중견급 저축은행은 M&A 시장에서 경쟁력 높은 상품으로 분류됐다. 특히 영업구역 내 의무여신 비율

을 지켜야 하는 저축은행의 특성상 수도권 저축은행이 매력적인 매물로 평가받았다. 해당 시기 저축은행간 인수합병을 허용해 달라는 규제완화 방안에 한 목소리를 낸 이유다.

상황이 어려워진 만큼 올리는 경영 안정성이 화두다. 호황기에 다져놓은 기초체력으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지 관심이 쏠린다.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지난 1분기 저축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비율은 14.69%로 법정기준의 2배를 유지하고 있고 유동성비율과 대손충당금적립률은 각각 227.27%, 112.99%다.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을 초과한 수치다.

/김정산 기자



사계절맛 제철기부

사시사철 365일 기부가 제철입니다

사시사철 늘 맛있는 우리쌀로
제철기부에 보답합니다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우리 제철 농축산물을 선택하세요

고향사랑기부제는 정부·지자체
그리고 농협이 함께 합니다



#쌀의 효능

쌀은 위의 기를 평화게 하고
근육을 기르며 속을 따뜻히 해
기운을 돋으며 번열을 제거한다.
또한 소화기형을 가진
허약체질의 환자에게
식이요법의 훌륭한 약재이다.

- 동의보감 쌀의 효능 중에서

고향사랑기부제란?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를 제외한 원하는 지자체(고향 등)에 기부하면
기부자에게 세제 혜택과 기부금의 일정액을 답례품으로 제공하는 제도

고향사랑기부제 혜택

기부금 세액 공제 10만원까지 전액 공제(10만원 초과분 16.5% 공제)
농축산물 답례품 제공 기부금의 30% 상당 농축산물 답례품 지급

고향사랑기부 신청 방법

온라인 : 정부 종합정보시스템 [고향사랑e음] 오프라인 : 전국 농협은행 · 농축협
※ 기부 한도액 : 1인당 연간 500만원 이내(법인·불기)

‘순직해병 특검법’ 또 좌초… 與野, 제3자 특검법 합의할까

찬성 194표로 재의결 문턱 못넘어
해병대 예비역 “韓, 특검법 발의하라”
韓, 전대 중 ‘제3자 특검법안’ 제안
이재명·與 반대 기류에 논의 미지수

고(故) 해병대 채상병 특검법안(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결 건이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부쳐졌지만 부결됐다.

특검법안은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자동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특검법안은 총투표수 299표 중에 찬성 194표, 반대 104표, 무효 1표로 재의결 문턱을 넘지 못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에서 재의결 표결을 할 경우 의결정족수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이상 찬성이기 때문에 특검법안 재의결을 위해선 200표의 찬성표가 필요했다.

특검법안이 부결되자 본회의장 참관석에서 이를 지켜보던 해병대 예비역들은 “한동훈은 지금 당장 채상병 특검법을 발의하라”고 외친 후 퇴장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방송법 관련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왼쪽).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순직해병 특검법 찬성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있다. /뉴시스

여야는 본회의장이 있는 로텐더홀에서 서로를 비판하는 농성을 하며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야당이 강행하는 방송4법 추진을 비판한 반면, 야당은 여당에 특검법안을 즉각 수용하라고 재촉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오늘 특검법안을 상정했다. 그럴거면 왜 대정부 질문을 못하게 했나”라며 “개원식까지 못 열게 6월 국회를 왜 엉망으로 만들었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과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표결 결과로 답하겠다”라고 부연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대통령이 국회를 무시하고 여당이 국회 의무를 내팽개치고 돌아다닌다면 그것이 합의가 되겠나”라며 “그러면 원칙으로 돌아가서 다수결로 처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 본회의 역시 합의해서 여는 것이 아니라 협의를 하고 협의를 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열 수 있다”며 “오늘 본회의에선 국민들이 기다리고 계신, 윤 대통령이 두 차례나 거부권을 행사한 특검법안, 일본 정부의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철회 및 일본 근대산업 시설 유네스코 권고 이행 촉구 결의안, 방송 정상화를 위한 방송4법 등 아주 중요한 법들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갈등이 악순환으로 반복되는 상황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며 “국민께도 송구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래서 더는 갈등과 혼란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강대강 대결을 벗어나보고자 정부여당과 야당에 중재안을 드린 것”이라며 “중재안은 가장 먼저 민주당 지지자에게 호된 비판을 들었으나 그래도 한발 물러나는 것이 1보 전진이라고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또, “의장은 22대 국회를 구성한 민심을 반영하는 국회를 만들 의무가 있다”며 “상황 변화가 없기 때문에 본회의부의 법안을 처리할 수밖에 없다”며 의사 일정을 진행했다.

야당이 주도한 특검법안이 끝내 좌초됨에 따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전당대회 중 제안한 제3자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는 특검법안에 여야가 합의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은다. 다만, 한 대표가 제안한 제3자 특검법안은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도 반대 의사를 표명한 바 있고, 여당 내에도 특검 자체에 반대하는 기류가 있어 신속하게 논의의 테이블에 오를지는 미지수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생명보험이 100세 시대를 뛰는 당신의 삶을 응원합니다.

위기가 왔을 때 가장 빛을 발하는 금융, 생명보험으로 준비하세요!
100세 시대를 맞이하여 종신까지 든든한 생명보험이 삶의 여유를 드립니다.
혜택도 보장도 평생 든든한 생명보험이 함께 합니다.

생명보험협회
Korea Life Insurance Association

MBC 노조 탄압 의혹에 이진숙 “인정하지 않아”

(방송위원장 후보자)

파업 와해 위한 용역계약 논란 부인
불법 사찰 의혹엔 “사내 보안 위한 것”

이진숙방송통신위원회(방송위)위원장 후보자가 25일 오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이틀 연속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MBC 노조 탄압 의혹’에 대해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2012년 MBC 기획홍보본부장으로 재직했을 당시 MBC 노조 파업을 와해시키기 위해 인터넷 언론사 ‘위키트리’의 지배사인 주식회사 소셜홀딩스와 2억5000만원의 용역 계약을 맺은 의혹을 받고 있다.

이후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이 후보자에게 “계약서엔 특정 프로그램이나 시스템을 이용해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인위적으로 가입해 여론을 조작하겠다는 내용이 있다”며 “여론을 조작해서 노조를 불리하게 만들고 MBC 사측이 여론 형성을 통해 주도권을 지켰다는 내용이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인정하지 않는다”며 “민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언론노조가 170일, MBC 사상 최장 파업에 들어갔고 이는 1년의 절반 정도에 해당한다. 아마 일반기업 같았으면 회사가 문을 닫고도 남을 시간”이라고 답했다.

이 의원은 “이 파업은 공정한 파업이라고 대법원에서도 인정한 파업”이라며 “그 파업을 공격하기 위해서 거액을 들여 노조 파괴 공작, 아니면 여론 형성을 불법적으로 한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이 후보자는 “저희는 리스크 매니지먼트, 위기관리 계약을 맺었던 것”이라

며 “10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파업에 나갔고 저희는 (경쟁진으로서) 회사를 지킬 의무가 있었다”고 반박했다.

같은 당의 황정아 의원은 이 후보에게 트로이카(보안프로그램)를 통한 MBC 불법 사찰 의혹을 언급하며 “그 사찰 자체가 노조 탄압을 위해 돈을 주고 여론 조작까지 (위키트리에) 시켰다는 점이 밝혀지지 않았나”라고 질의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인트라넷이 해킹을 당하고 사장의 법인카드 내역까지 유출되고 있었기 때문에 사내의 보안 프로그램을 강화하기 위해서 설치했던 프로그램이다”고 했다.

이진숙 후보자는 ‘MBC의 편향성’을 언급하며 보도 방향성을 시정하겠다고 했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MBC가 특정 정파적 색깔을 유독 강하게 띠는 방송이라고 볼 수 있고 공영방송이기 때문에 국가 전체에 미치는 부작용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한다. 후보자께서 (방송위) 위원장으로 임명된다면 이 불공정한 보도 태도와 관행을 바로잡을 방법이 있나”라고 질의했다.

이 후보는 “공정한 방식으로 법과 규정에 따라 MBC의 편향성을 시정할 수 있는 (방송문화진흥회) 이사가 선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많은 국민들이 비교적 균형각을 가지고 보도해야 하는 공영방송이 왜 더더욱 한쪽으로 치우친 방송을 하는가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진 분들이 많다. 여러 가지 방안을 연구해 보겠다”고 했다.

/*윤도현 기자 yunbgh0611@

기억합니다

62년 전 정유공장을 짓던 다짐을
우리 손으로 원유를 캐내던 열정을

기약합니다

석유제품부터 배터리까지
우리의 기술로 전세계가 움직일 날들을

대한민국에 필요한 이노베이션



건강보험 더 쉽고 간편하게... 보험사, 제3보험 파이 키운다

제3보험 시장 연평균 7% 고성장
KB손보 3.10.10 간편건강보험
유병자 고객의 건강등급 세분화

손보사 독주 속 생보사 상품 강화
교보, 2종 출시 등 라인업 확대

건강보험의 가입 문턱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 보험업계가 쉽고 가볍게 가입할 수 있는 건강보험 상품을 선보이면서 제3보험 시장 점유율 확대를 노리고 있다.

2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KB손해보험은 지난 8일 간편건강보험 신상품을 출시했다. 지난 5월 초경증 유병자를 위한 '3.10.10 슬기로운 간편건강보험 플러스(Plus)'에 이어 7월에는 입원과 수술 중 하나만 고지하고 가입할 수 있는 신상품 '입원·수술 하나만 물어보는 간편건강보험'을 선보여 건강보험 상품 라인업을 강화했다.

3.10.10 간편건강보험은 업계 최초로 간편건강보험의 기존 계약 전 알릴 의무에 10년 내 고지 질문을 추가해 유병



ChatGPT에 의해 생성된 '건강보험 가입 문턱 완화' 이미지.

자 고객의 건강등급을 세분화했다.

이번달 새롭게 출시한 간편건강보험은 고지사항 중 입원과 수술에 대한 질문을 분리했다. 보장이나 상품 구조, 납입면제 등은 기존 3.10.10 상품과 동일하나 입원과 수술을 묻는 질문사항을 분리해 가입 문턱을 낮춰 고객의 상품 선택권을 넓혔다.

KB손해보험 관계자는 "기존 간편보험은 고지기간에 따라 상품을 구분했지만 고지질문을 세분화해 새로운 유형의 상품을 선도적으로 출시했다"고 밝혔다.

한화손해보험은 지난 5월 'LIFEPLUS 3N5 간편건강보험'을 선보였다. 유방암(수용체타입)진단비 등의 여성특

화담보를 신설하고 암 진단 후 특정치료비에 대한 감액기간을 없앴다. 해당 상품은 입원·수술 병력고지 기간에 따라 '305, 315, 325, 335, 345, 355'의 6개 질문유형을 모두 담아 중증유병자부터 경증유병자까지 모두 가입할 수 있다.

생보업계도 간편건강보험에 집중하고 있다. 교보생명도 지난 6월 '교보간편평생건강보험', '교보간편마이플랜 건강보험' 등 2종을 출시해 건강보험 상품 라인업을 확대했다. 간편평생건강보험은 유병자와 고령자를 위해 3대 질병을 포함한 주요 질병을 평생 보장하는 중신보장의 형태다. 간편마이플랜건강보험은 계약 전 알릴 의무를 더욱 간소화하고 유병자들이 필요한 보장을 맞춤형 설계할 수 있도록 가입 문턱을 낮췄다.

흥국생명도 이번달 유병력자를 위한 '다사랑 3N5 간편건강보험'을 출시했다. 일정 기간 동안 입원 및 수술 이력이 없는 경우 계약전환제도를 통해 보험료를 할인 받고 가입자는 자신의 건강상황에 맞게 고지의무기간을 선택해 가입할 수 있다.

보험업계가 간편건강보험으로 건강

보험의 가입 문턱을 낮춘 요인으로는 제3보험 시장 점유율 확대가 꼽힌다. 제3보험은 질병·상해·암 등 보험업계에서 모두 판매할 수 있는 보험을 말한다.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건강보험으로 고객 유입시키고 제3보험 확장을 노린다는 계획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건강보험 신상품을 출시해 상품 라인업을 강화하고 제3보험 시장 쪽에 적극적으로 영업을 푸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제3보험 시장은 연평균 7%의 고성장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IFRS17에서 보험계약마진(CSM)이 중요해짐에 따라 건강보험 판매 확대는 필수로 꼽힌다. 생보사들이 점유율 확대를 노리고 있으나 여전히 손보사가 70%가 넘는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IFRS17 도입 후 수익성 높은 건강보험 위주로 판매하는 추세"라며 "보험사 입장에서 수익성과 제3보험 시장 개척 측면에서 가벼운 건강보험 위주로 집중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주형 기자 gh471@metroseoul.co.kr

GS건설, 저출생 극복 앞장... 난임시술비 등 지원 확대

임신·출산·육아 관련 사내제도 개편
산후조리원비 50% 지원, 축하금 2배

GS건설이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GS건설은 임신·출산·육아 전 주기에 걸쳐 혜택을 확충하고, 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보강 및 신설한다고 25일 밝혔다. 특히 난임시술비와 산후조리원 비용 지원 등 직원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혜택들이 새로 마련됐다.

GS건설은 업계 최초로 2014년 사내 어린이집을 만들어 현재까지 운영 중이다. 육아휴직제, 난임 휴가 제공 등 기존에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갖추고 있지만 저출생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기업차원에서 지원을 한층 강화해 사회



최근 쌍둥이 자녀를 출산해 육아휴직 중인 GS건설 직원(왼쪽)이 아내와 함께 회사에서 준비한 출산축하선물을 받고 웃고 있다. /GS건설

적 역할을 하고자 하는 취지로 이번 제도 개편을 진행하게 됐다.

GS건설의 사내 제도 개편은 임신부터 출산, 육아 전 주기에 걸쳐 직원들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난임 시술비 지원과 산후조리원 지원과 같이 서술시 등 지자체 지원제도가 있는 부분도 회사 차원에서 추가로 보강했다.

난임시술비는 1회당 100만원 한도 내, 총 5회까지 지원한다. 산후조리원 비용은 실 발생비용의 50%를 회사에서 지원하고, 출산 축하금도 기존보다 2배가량 상향 지급한다.

출산축하선물 및 예비부모를 위한 교육, 육아휴직 복지자를 위한 적응 교육 등 다양한 교육제도를 신설했다. 법적으로 지정된 육아휴직 기간 1년 외 추가로 최대 1년을 더 사용할 수 있도록 기간을 확대했고, 남성 직원들을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도 기존 10일에서 2배 확대해 20일로 적용한다.

GS건설 관계자는 "저출생 문제가 사회적으로도 큰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실효성 있는 사내 제도 보강, 신설 및 눈치보지 않고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사내 분위기 조성을 통해 직원들이 일과 가정이 양립된 삶을 영위함으로써 사회적 문제 해결에 동참하고, 나아가 기업의 경쟁력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GS건설 허윤홍 대표는 최근 비전 선포를 통해 "임직원들이 회사의 가장 소중한 자산"이라며 조직 구성원들을 소중히 여기는 기업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 임신·출산·육아 관련 사내제도 개편 외에도 수평적인 조직문화 정착을 위해 호칭단일화, 사무실 파티션 없애기, 여름철 반바지 허용 등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소통하며 창의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사내분위기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안상미 기자 smahn1@

BNK부산은행 금융취약층 대상 300억 부채 탕감

BNK부산은행은 금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총 300억원 규모의 부실채권 탕감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부산은행은 고령자 및 장기소액연체자 등 금융취약계층이 보유한 소멸시효 완성채권을 오는 2026년까지 대상자를 선정해 총 300억원 한도로 일괄 채무 감면 및 신용정보등록 해제 조치한다.

부산은행은 이번 프로그램으로 채무자 상환 부담 해소 및 연체 정보를 해제해 금융취약계층의 경제활동 재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승진 기자 asj1231@

신한은행 우버 택시기사들에 금융 솔루션 제공

신한은행이 25일 우버 택시와 '가맹 택시기사 금융솔루션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신한은행은 우버 가맹 택시기사들을 대상으로 택시전용 대출상품 '신한 MY TAXI 행복대출' 금리 및 한도를 우대하고 운송수입금 입금계좌를 신한은행으로 지정하는 경우 캐시백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금융솔루션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 가맹 택시기사를 대상으로 하는 금융 세미나, 전문가의 자산관리 서비스 등 폭넓은 혜택을 제공하고, 신한은행 고객을 대상으로 우버 택시 할인·이용권도 제공할 예정이다.

/나유리 기자 yul115@

SC제일은행, 최고 연 4.0% 수시입출금 'Hi통장' 선포

첫 거래고객 잔액별 우대금리 제공
연말까지 특별금리 일괄제공 행사

SC제일은행은 입출금이 자유로운면서도 우대금리 제공 조건 충족 시 최고 연 4.0%의 금리를 제공하는 'SC제일 Hi(하이)통장'을 선보인다고 25일 밝혔다.

Hi통장은 첫 거래 고객에게 반갑게 인사(Hi)한다는 의미와 고금리(High)를 제공한다는 중의적 의미를 갖는 수시입출금 신상품이다. 기본금리 0.1%에 더해 우대금리를 최고 3.9%포인트(p)까지 추가로 제공한다.

우대금리 제공 조건은 SC제일은행

▲첫 거래 고객(신규일 기준 31일 이내 계좌 신규 고객)에게 잔액 구간별로 2.4~3.4%p ▲재휴 채널에서 계좌 개설 시 0.1%p ▲마케팅 동의 시 0.2%p ▲SC제일은행의 프라이머리티 등급 이상 고객 0.2%p 등이다.

첫 거래 고객에게 제공되는 계좌잔액별 우대금리 제공기간은 원칙적으로 가입일로부터 1년 동안 제공되지만, 일정 요건을 만족하면 1년 단위로 연장된다.

SC제일은행은 Hi통장 출시를 기념하고자 우대금리 가운데 '첫 거래 고객'의 계좌 잔액별 우대금리 조건을 올해 말까지 일괄 잔액에 관계 없이 첫 거래 고객 모두에게 3.4%p의 특별금리를 일

괄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에 따라 첫 거래 고객의 잔액별 우대금리는 오는 2025년 1월 1일부터 일별 최종 잔액에 따라 구간별로 차등화(▲1억원 미만 2.4%p ▲1억~3억원 2.9%p ▲3억원 초과 3.4%p)된다.

Hi통장은 인터넷·모바일뱅킹 이체, 영업시간 외 당행 자동화기기 출금, 당행 자동화 기기 타행이체(월 10회까지), 타행 자동화기기 출금(시간외, 공휴일 포함), 타행 자동이체 등 각종 금융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혜택도 제공한다.

박종관 SC제일은행 담보여신·수신 상품부장은 "Hi통장은 입출금이 자



SC제일은행은 최대 연 4.0%의 금리를 제공하는 고금리 수시 입출금 상품인 'SC제일 Hi통장'을 출시했다. /SC제일은행

유로우면서도 업계 최고 수준의 금리 혜택과 각종 수수료 면제 혜택까지 제공한다"며 "여유자금 예치를 목적으로 파킹통장을 찾는 고객들에게 적격일 것으로 자신한다"고 말했다.

/안승진 기자 asj1231@

매출 16조·영업익 5.5조 신기록… “연내 HBM3E 12단 공급”

SK하이닉스 컨퍼런스콜

2분기 매출·영업익 사상 최대
AI 메모리 중심 투자 확대 방침
“HBM 생산능력 2배 이상 확대”

SK하이닉스가 사상최대 실적을 기록한 가운데 올해 HBM 생산능력(CAP A)를 2배 이상 확대한다. 인공지능(AI) 메모리 수요 강세를 타고 HBM 공급을 확대해 경쟁우위를 지키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올해 4분기부터는 HBM3E 12단 공급을 시작함으로써 올해 HBM 매출은 300% 이상 늘 것으로 전망했다.

SK하이닉스가 올해 2분기 고대역폭 메모리(HBM) 효과로 매출 16조 원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 실적을 냈다. 영업이익은 흑자전환했다. 최근 인공지능(AI) 시장 확대로 HBM 수요가 늘어난 데다, 고성능·고용량 낸드 수요도 크게 늘며 1분기에 이어 호실적을 거둔 것으로 풀이된다.

SK하이닉스는 25일 올해 2분기 실적 발표 후 진행된 컨퍼런스콜에서 “HBM의 내년 출하량은 올해보다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올해 HBM 매출이 지난해에 비해 300%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HBM은 D램을 수직으로 적층해 데이터 처리 성능을 개선한 메모리다. 그래픽처리장치(GPU)와 함께 AI서비스 구현에 사용되고 있다. SK하이닉스는 현재 AI 반도체 시장의 주축인 엔비디아에 4세대 HBM인 HBM3를 독점 공급하고 있다. 특히 최근 엔비디아의 차



SK하이닉스는 올해 2분기 매출 16조4233억원, 영업이익 5조4685억원의 실적을 기록했다고 25일 밝혔다. 경기도 이천시 SK하이닉스 본사 모습. /뉴스1

세대 그래픽처리장치(GPU) 출시 계획이 앞당겨지며 SK하이닉스의 HBM3E 납품 계획도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 3분기 내 HBM3E 12단 양산

SK하이닉스는 HBM3E 12단 제품을 3분기 내 양산해 경쟁우위를 지키겠다는 방침이다.

김우현 SK하이닉스 부사장(CFO)은 “2분기에 HBM3E 출하를 크게 확대해 3분기에는 HBM3E 출하량이 HBM3(4세대)를 크게 넘어설 것”이라며 “올해 HBM3E 출하량은 전체 HBM 출하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SK하이닉스는 HBM3E 12단 제품의 공급 안정성 확보도 자신했다.

김 부사장은 “8단에 비해 12단 제품

의 기술 난도가 높긴 하지만, 이미 HBM3 12단 제품 양산 경험이 있고, HBM3E 8단 제품도 성공적으로 개발했다”고 말했다. 이어 “HBM3E 12단 제품은 이미 주요 고객에 샘플로 제공했고, 계획대로 3분기부터 양산을 시작한다”며 “4분기에는 고객에 공급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실제 SK하이닉스는 HBM 수요 증가에 대응해 신규 생산기지로 낙점했던 청주 M15X는 최근 공사를 시작했다. 내년 하반기 양산 개시를 목표로 건설이 진행 중이다. 현재 부지 공사가 한창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첫 번째 팹은 예정대로 내년 3월 착공해 2027년 5월 준공할 계획이다

다만, 김 부사장은 HBM이 D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투자 비용을 우

려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전방 시장 상황과 공급망 내 공급 여력을 확인해서 신중하게 투자에 반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또 낸드에서 수요가 커지고 있는 고용량 기업용 솔리드스테이트 드라이브(eSSD) 판매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AI 산업 성장으로 데이터센터용 서버 등 낸드 수요가 크게 증가하면서 낸드 사업의 성장세가 지속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2분기 SK하이닉스의 낸드 실적은 eSSD와 모바일용 제품 위주로 판매가 확대됐으며, 이 가운데 eSSD는 1분기보다 매출이 약 50% 증가하며 가파른 성장세를 이어갔다.

SK하이닉스는 하반기에도 AI 서버용 메모리 수요가 지속 증가하는 가운

데, 온디바이스(On-Device) AI를 지원하는 새로운 PC와 모바일 제품들이 시장에 출시되며 여기에 들어가는 고성능 메모리 판매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일반 메모리 제품 수요도 완연한 상승세를 탈 것으로 내다봤다.

◆SK하이닉스 상반기 성과급, 월 기본급 150%

SK하이닉스는 이날 연결기준 올해 2분기 매출액 16조4233억원, 영업이익 5조4685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영업이익률은 33%, 순이익은 4조1200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이익은 6년 만에 5조 원대 실적을 달성했다.

SK하이닉스 관계자는 “HBM, 기업용 솔리드스테이트 드라이브(eSSD) 등 인공지능(AI) 메모리 수요 강세와 함께 D램과 낸드 제품 전반적으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며 1분기 대비 매출이 32% 증가했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 보면 D램에서는 지난 3월부터 양산에 들어가 공급을 본격화한 HBM3E와 서버 D램 등 고부가가치 제품의 판매 비중이 확대됐다. 특히 HBM 매출은 전분기 대비 80% 이상, 전년 동기 대비 250% 이상 증가하며 실적 개선을 주도했다.

SK하이닉스가 올 상반기 역대급 실적을 기록하면서 성과급 규모도 월 기본급의 150%로 책정됐다. 솔리다임을 제외한 SK하이닉스의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률이 30%를 넘으면서 올해 상반기 생산성 격려금(PI)도 최대치를 지급하기로 했다. PI는 오는 26일 지급될 예정이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HD현대, 조선·중공업·건설 등 실적 호조

2분기 매출 1.7조·영업익 8799억
“안정적 실적 흐름 유지해 나갈 것”

HD현대가 올해 2분기 연결기준 매출 17조5549억 원, 영업이익 8799억 원을 기록했다고 25일 공시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12.4%, 영업이익은 86.2% 증가했다.

이로써 HD현대는 상반기 연결기준 매출 34조693억 원, 영업이익 1조6735억 원을 기록했다. 이런 호조세는 조선 부문 실적이 개선되고, 전력기기 및 선박 AM·디지털 솔루션 사업이 호조세를 이어간 데 따른 것이다.

2분기 실적을 주요 사업별로 살펴보면, 조선·해양 부문의 HD한국조선해양은 친환경 이중연료 선박 등 고부가가치 선박의 매출이 실적에 본격 반영되면서 전년 같은 기간보다 21.3% 증가한 6조6155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영업이익은 선별 수주에 따른 수익성 개선과 생산 안정화를 통한 비용 절감 노력으로 전년 동기 대비 428.7% 증가한 3764억 원을 기록, 5분기 연속 흑자를 달성했다.

HD한국조선해양의 자회사인 HD현대중공업은 전년 동기 대비 26.7% 늘어난 3조8840억 원, HD현대삼호는 16.9% 증가한 1조8106억 원, HD현대



HD한국조선해양 컨테이너선

미포는 9.3% 증가한 1조1291억 원의 매출을 각각 거뒀다.

HD현대중공업과 HD현대삼호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85.5%, 182.2% 증가한 1956억 원과 1755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며 조선 부문의 실적 개선을 주도했다. 특히 HD현대미포 역시 174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 7분기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에너지 부문의 HD현대오일뱅크는 매출 7조8440억 원과 영업이익 734억 원을 기록했다.

정제마진 하락과 휘발유·경유 등 경질유 제품군의 시황 악화로 1분기 대비 매출과 영업이익이 감소했다. 하반기 산업 수요 증대 및 겨울철 난방유 사용 증가 등으로 시황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바이오연료 등 친환경 제

품 공급을 늘려 수익성을 제고해나갈 예정이다.

건설기계 부문의 HD현대사이트솔루션은 고급리 기조로 인한 글로벌 건설기계 시장의 긴축 흐름이 2분기에도 지속되며 매출과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6.4%, 37.5% 줄어든 2조131억 원과 1694억 원을 기록했다.

HD현대일렉트릭은 글로벌 전력인프라 수요 확대에 힘입어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이 42.7% 늘어난 9169억 원을 기록했다. 영업이익은 257.1% 증가한 2100억 원을 달성하며 영업이익률 22.9%를 기록했다.

HD현대마린솔루션은 친환경 규제 강화에 따른 선박 AM(After Market) 사업 호조세와 디지털 솔루션 사업의 확대에 전년 동기보다 20.2% 늘어난 4379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영업이익은 29.6% 늘어난 710억 원이다.

HD현대에너지솔루션은 매출 1128억 원과 영업이익 79억 원을 기록했고, HD현대로보틱스는 매출 697억 원과 영업이익 3억 원을 기록, 두 계열사 모두 3분기 만에 흑자 전환했다.

HD현대 관계자는 “하반기에도 수익성 위주의 영업전략을 통해 안정적인 실적 흐름을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양성운 기자 ysw@

한국엔컴퍼니그룹, ‘JR 에너지솔루션’ 지분투자 조현범 號 이차전지 분야 본격 진출

지분 15% 획득… 3대 주주 등극
“리튬이온배터리 셀 기술·제품 개발”

한국엔컴퍼니그룹이 리튬이온배터리(LIB) ‘전극’ 생산 기업의 지분을 취득하고 이차전지 분야 사업에 진출한다. 향후 발전 잠재력이 큰 이차전지 시장에 선제적으로 진출하는 한편, 기존에 영위하던 납축전지 사업과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한국엔컴퍼니그룹의 사업형 지주회사 한국엔컴퍼니는 국내 2차 전지 전극 파운드리 기업 ‘JR 에너지 솔루션’을 대상으로 90억원 규모 시리즈 A 투자를 단행했다고 25일 밝혔다. JR 에너지 솔루션은 리튬이온배터리 핵심 소재 ‘전극’을 스마트 팩토리 기술 기반으로 생산하는 유망 스타트업이다.

다수의 전문 인력과 높은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충청북도 음성군에 500MWh 규모의 전극 공장을 준공해 생산 역량을 확보했다.

한국엔컴퍼니는 이번 시리즈 A 투자를 통해 JR 에너지 솔루션 지분 15.20%를 획득하며 3대 주주이자 전략적 투자자로 파트너십을 맺었다.

한국엔컴퍼니 ES(Energy Solution) 사업본부는 미래 신성장 동력을 확



보하기위하여리튬이온배터리사업 진출에 관한다각적인검토와 함께 전략적 투자 대상을 모색해왔다.

최근 전기차 중심 모빌리티 대전환과 더불어 에너지저장장치 보급 확산 등 친환경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수요 증가로 글로벌 리튬이온배터리 시장은 2030년까지 가파른 성장이 예상된다.

한국엔컴퍼니 관계자는 “지분 투자를 계기로 JR 에너지 솔루션과 리튬이온배터리 셀(cell) 기술 및 제품 개발, 사업 협력 등을 추진해 비즈니스 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편 한국엔컴퍼니는 2021년 4월 ㈜한국아트라스비엑스 흡수 합병을 통한 사업형 지주회사 출범 이후 조현범 회장(사진) 주도 하에 신성장 동력 발굴에 매진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한국엔컴퍼니 ES사업본부는 기존 차량용 및 산업용 납축전지 사업 영역에서 한발 더 나아가, LIB 비즈니스를 지속가능 성장을 이끌어 나갈 핵심 모멘텀으로 삼고 적극적인 투자와 기술력 확보에 나서고 있다.

/양성운 기자

“가전 끌고 전장 밀고”... LG전자, 2분기 역대최대 실적 썼다

매출액 21조, 영업이익 1.2조 달성
전년대비 각각 8.5%, 61.2% 증가
라인업·가격대 다변화 전략 주요
구독·온라인 등 신규 사업도 성과

LG전자가 올해 2분기(4~6월) 매출액, 영업이익 모두 역대 같은 분기 최대치를 기록했다.

LG전자는 25일 올해 2분기 연결기준 매출액 21조6944억원, 영업이익 1조1962억원의 확정실적을 발표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은 8.5%, 영업이익은 61.2% 증가했다.

특히 주력사업에 해당하는 생활가전(H&A)과 미래 성장의 한 축인 전장(VS) 사업은 역대 분기 최대 매출을 기록했다. LG전자는 “현재 주력사업과 미래 사업의 균형 잡힌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밝혔다.

올해 2분기 실적을 사업부문별로 보면 H&A사업본부 매출액 8조8429억원, 영업이익 6944억원이다.

전년 2분기 대비 매출은 11% 늘고,



LG전자가 3분기 매출액을 발표한 2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LG트윈타워에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이날 LG전자는 3분기 기준 매출액이 18조7867억원으로 집계돼, 분기 사상 역대 최고 매출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뉴시스

영업이익은 16% 증가했다. 중남미, 중동·아프리카와 같은 신흥시장 수요 확대에 맞춰 라인업과 가격대를 다변화하는 등 시장 양극화에 대응하는 불륨존 전략이 주요했다고 회사 측은 밝혔다. 여기에 구독, 온라인 등 신규 사업 영

역도 성과를 냈다. 지난달 LG베스트샵에서 판매된 주요 가전제품 구독 비중은 36.2%에 달한다.

TV 사업을 맡은 HE사업본부 매출액 3조6182억원, 영업이익 970억원을 기록했다.

매출은 전년 3조1467억원 대비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은 1467억원 대비 33.9% 감소했다. 주력 상품인 올레드(OLED·유기발광다이오드) TV는 유럽 지역 수요 회복에 힘입어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15.3% 올랐다. 웹(web)OS 콘텐츠·서비스 사업에서 성장세가 지속됐으나 LCD(액정표시장치) 패널 가격 등 원가 상승 요인으로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줄었다.

VS사업본부는 매출 2조6919억원, 영업이익 817억원이다. 매출은 1% 늘고, 영업이익은 전년(-612억원) 대비 흑자 전환했다. 매출액은 전 분기를 통틀어 역대 최대다.

BS사업본부는 매출 1조4644억원, 영업손실 59억원을 기록했다. 매출은 LED 사이니지, 전자질판, 게이밍모니터 등 전자 제품의 매출 확대가 이어지며 전년 동기 대비 9.9% 늘었다. 다만 수익성 측면에서는 LCD 패널 등 원가 상승 요인과 전기차 충전, 로봇 등 육성 사업의 투자가 이어지며 소폭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LG전자는 미래 지향적 사업구조로의 체질개선과 사업방식 변화를 지속하고 있다.

오는 3분기 생활가전 사업은 시장 수요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냉난방 공조, 빌트인 등 B2B(기업간거래) 사업 확대를 지속한다. TV는 사업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플랫폼 사업인 webOS 콘텐츠/서비스 사업의 모수를 TV에서 IT, 인포테인먼트 등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BS 사업도 원가 부담을 최소화하고, 전장 사업도 일시적 전기차 수요둔화에 불구하고 전기차와 내연기관차를 아우르는 균형 잡힌 포트폴리오와 그간 확보해 온 수주 물량을 기반으로 성장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신사업 전력화도 속도를 낸다. 제조 노하우에 AI를 결합해 올해 시작한 스마트팩토리 사업은 첫해 외부 수주가 3000억원을 넘길 전망이다. 전기차 충전 사업도 북미 1위 충전사업자 차지포 인트사와 손잡고 시장 공략을 본격화한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LG디스플레이, OLED로 적자 폭 줄였다

2분기 매출 6.7조, 영업손실 937억
영업손실 적자 폭 전년비 7800억 ↓
IT용 올레드 양산·사업 고도화 영향

LG디스플레이가 올해 2분기 937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적자폭을 7800억원 이상 줄이며 실적 개선에 성공했다. 올해 본격화된 IT용 올레드(OLED·유기발광다이오드) 양산 영향으로 영업손실 규모를 대폭 축소할 것으로 보인다.

LG디스플레이는 25일 오후 매출 6조7082억원, 영업손실 937억원의 2분기 경영실적을 발표했다. 전분기 대비 3757억원, 전년 동기 대비 7878억원 적자 폭을 줄이는 데 성공했다.

회사는 “IT용 올레드 양산 본격화, 대형 올레드 생산 확대 등 사업구조 고도화 성과와 우호적인 환율 영향에 따라 큰 폭으로 개선됐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출시된 애플 아이패드용 올레드 패널을 공급하는 점과, 하반기 출시 예정인 아이폰용 올레드 패널이 주요한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다.



LGD 파주공장.

애플은 지난 5월 시리즈 최초로 올레드 패널을 적용한 아이패드 프로 신제품을 출시했는데, LG디스플레이는 절반 이상의 패널 물량을 맡았던 것으로 파악된다.

회사 관계자는 “지난 2년 동안 초기에 공급에 좀 이슈가 있었지만 올해는 적기 양산과 안정적 공급 체계를 갖춰 과거와 다른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강화된 생산 역량과 확대된 생산 인프라를 기반으로 지난해 대비 패널 출하 확대를 계획하고 있다”며 “이

를 통해 올해 매출과 손익에서 의미 있는 개선을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LG디스플레이는 중소형 올레드 사업 부분에서 모바일용 올레드의 강화된 생산 역량과 생산 능력을 적극 활용해 전년 대비 패널 출하를 확대해 하이엔드 시장 내 점유율을 제고할 계획이다.

IT용 올레드는 장수명·고휘도·저전력 등 내구성과 성능이 뛰어난 탠덤(Tandem) 올레드 등 기술 리더십을 기반으로 안정적인 양산을 시작한 이후 출하를 진행하고 있다.

/이혜민 기자 hyem@

철강·인프라 반등... 이차전지 소재 발목

포스코홀딩스, 2분기 실적 부진
영업익 7520억 전년비 43.3% 감소

포스코홀딩스가 철강 시장 수요 둔화와 전기차 캐즘의 영향 등의 악재로 부진한 실적을 기록했다.

포스코홀딩스가 올 2분기 연결기준 매출 18조 5100억원, 영업이익 7520억원, 순이익 5460억원의 실적을 발표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8%, 43.3% 감소했다.

철강부문 실적은 지난해 4분기를 기점으로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 포스코 고로 개수 등의 영향으로 생산과 판매가 줄어 전분기 대비 매출은 다소 줄었으나, 판매가격 상승 및 원료비 감소의 영향으로 영업이익은 소폭 증가했다.

인프라부문에서는 포스코인터내셔널이 가스전 매장량 재인증을 통한 감가상각비 감소와 판매가격 상승으로 전분기 대비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상승했고, 포스코이앤씨도 대형 프로젝트 공정 추진에 따라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소폭 상승했다.

이차전지소재부문에서는 포스코퓨

처엠이 양극재 판가 하락과 인조흑연 음극재 공장 초기가동 비용 계상으로 전분기 대비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하락했지만 고부가가치 제품인 하이니켈 양극재(N86, N87, NCA)의 판매량 증가와 수율 개선으로 올해 흑자기조를 이어갔다.

이날 정기집 포스코홀딩스 전략기획총괄(대표이사 사장)은 “회사는 급변하는 외부환경 변화에 투자시기 조정 등 세부적인 전술의 변화는 검토하고 있지만, 철강과 이차전지소재사업 성장을 위한 핵심전략은 꾸준히 추진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또 포스코홀딩스는 철강부문에서 경제적 녹색전환(GX) 추진을 위해 국가 R&D 실증사업과 연계한 수소환원제철 기술개발 경과를 소개했고, 리튬/니켈 등 이차전지소재원료의 생산준비현황 경과 및 계획도 공유했다. 이와 함께 그룹의 안정적인 수익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미얀마 해상가스전 및 Senex3배 증산 확장개발 등 천연가스 생산 설비 확장 계획 진행사항도 발표했다.

/양성운 기자 ysw@

포스코인터, 2분기 영업익 3497억... “분기 최고 이익률”

에너지 사업 선방에 ‘깜짝 실적’

포스코인터내셔널이 올해 2분기 시장 전망치를 상회하는 ‘깜짝 실적’을 기록했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올 2분기 ▲매출 8조2823억원 ▲영업이익 3497억원 ▲영업이익률 4.2%를 달성했다고 25일 밝혔다. 올 2분기 영업이익은 에너지 사업 실적 호조로 시장 평균 전망치(컨센서스)인 2792억원을 25% 웃돌았다. 영

업이익률은 지난해 역대 최고 영업이익률(4.0%)을 갱신했다. 실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에너지 사업에서 1996억원 영업이익을 올렸다.

특히 해외 가스전의 판매량 증가에 힘입어 수익이 대폭 확대했다. 발전 사업은 비수기인데도 전년 대비 발전 이용률이 개선되며 견조한 실적을 보였다.

소재 사업 부문에서는 철강 및 친환경 분야를 포함해 1476억원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포스코인터는 원자재 시황 악화와 전기차 시장의 제한적인 성장에도 ▲친환경차 부품 ▲팜 사업 ▲2차전지소재 ▲고기능 철강소재 등으로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해 안정적인 수익을 이어갔다.

또 구동모터코아사업은 전기차 수요 부진에 따른 인도 지연으로 영향을 받았지만 글로벌 시장에서 43만대분 제품을 판매하며 812억원 매출을 달성했다.

/양성운 기자

교육업체 ‘이온’과 日 시장 공략

디지털전환(DX)전문기업 LG CNS가 일본 내 300여 개 넘는 직업 어학원을 운영하는 교육업체 이온(AEON)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일본 에듀테크 시장 공략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LG CNS는 ▲일본 공교육용 영어회화 AI튜터 앱 구축 ▲‘AI 스피크 튜터 2’ 앱 리뉴얼 ▲이온

온라인 학습 운영 플랫폼 고도화 ▲온·오프라인 학습 데이터 통합 및 분석 등을 추진한다.

양사는 일본 성인 이용자에게 제공 중인 AI 스피크 튜터2를 초·중학교 학생 대상으로 특화한 ‘AI 스피크 튜터 포 스쿨(가칭)’ 앱을 출시한다. 이를 통해 일본 영어 공교육 시장에 진출해 현지 초·중학교 학생들에게 영어 교과서를 활용한 AI 영어회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혜민 기자

ION SUPPLY DRINK

POCARI SWEAT

동아오츠카



유통기한 확인하여 식품안전에 유의하세요

코스피 '이전 호재'... 이제는 옛말 수급상 효과보다 실적개선에 집중

포스코DX, 주가 57%가량 떨어져
엘앤에프, 이전 상장 후 29% 하락
산업 불황·성장폭 둔화 등 영향
코스피 이전에 주가 ↑... 비정상적

코스닥 대장주들이 투자자 유입, 기업 인지도 제고 등의 효과를 예상하며 코스피로 자리를 옮겼으나 이들 기업의 주가는 기대에 못 미치는 부진한 성적을 거두고 있다.

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올해 코스닥서 코스피로 이전 상장한 파라다이스, 포스코DX, 엘앤에프 등의 주가는 두 자릿수 하락을 기록하고 있다.

지난달 24일 코스피 시장에 입성했던 카지노 기업 파라다이스의 주가는 이전 상장 후 19%가량 급락했다.

이전 상장을 한다는 소식에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당초 1만5000원을 넘어섰으나 최근 들어 1만2000원대까지 떨어졌다.

기대했던 기관이나 외국인의 대규모 자금 유입도 주춤했다. 오히려 이 기간 동안 기관은 361억원어치 순매도했으며 외국인의 순매입은 9억5600만원어치에 그쳤다.

올해 첫 코스피로 이전했던 정보기술(IT) 서비스기업 포스코DX의 주가 역시 이전 상장 직전 7만4200원에서 57%가량 떨어졌으며, 지난 1월 말 코스피로 옮겨온 2차전지 소재기업 엘앤에프의 주가도 이전 상장 이후 29% 내렸다.

이전 상장을 앞두고 15만9400원에 거래됐던 주가는 현재 11만3500원으로



Chat GPT에 의해 생성된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이전한 기업들의 주가가 급격히 하락하고 있는 이미지.

주저앉았다.

코스닥에서 코스피 이전은 수급 개선, 투자자 저변 확대, 기업가치 제고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시장에서 호재로 여겨졌으나 최근에는 그렇지 않은 모습이다. 이는 실적을 동반한 호재가 없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포스코DX, 엘앤에프의 경우 이차전지 산업 불황이 이어진 점이 주가에 반영됐다. 파라다이스도 성장폭이 둔화하고 있다.

키움증권은 파라다이스의 2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2.5% 증가한 2822억원에 영업이익은 25.4% 감소한 409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남수 키움증권 연구원은 "최근 공시를 통해 2026년 연결기준 1조2554억원의 매출 목표를 내세웠지만 단기 실적 개선 포인트 부재, 중장기 투자비용 증가로 발표 이후 주가는 하락했다"며

"올해 2~3분기는 전년 실적 베이스가 높아져 추가 성장 모멘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투자자들이 코스피 이전 상장보다는 기업의 실적과 성장 가능성에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투자자들이 이전 상장을 호재로 받아들이는 이유는 실적 개선보다는 단순히 수급상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 심리 때문"이라며 "이러한 수급상의 효과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업의 본질적 가치가 달라지지 않았는데 코스피로 이전한다고 해서 주가가 갑자기 높아지는 건 정상적이지 않다"며 "일시적인 수급상의 변화보다는 기업의 펀더멘탈(기초체력)을 중요하게 봐야 한다"고 했다.

/원관희 기자 wkh@metroseoul.co.kr

상반기 펀드 이익배당금 지급액 '23兆'

전년 동기 대비 84.2% 늘어

올해 상반기 펀드 이익배당금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상반기 펀드 이익배당금 지급액은 23조 443억원으로, 전년 동기(12조5082억원) 대비 84.2% 증가했다.

이중 공모펀드 이익배당금은 3조 4921억원으로 66.9% 증가했고, 같은 기간 사모펀드 이익배당금은 19조 5522억원으로 87.7% 늘었다.

이익배당금을 지급한 펀드수 역시 공모펀드 1349개, 사모펀드 7792개로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해 각각 32%, 6.5% 증가했다.

펀드 이익배당금 지급액 중 당해 펀드에 재투자한 금액은 12조7555억원으로 이익배당금의 55.4% 수준으로 집계됐다.

공모펀드 재투자율은 90.9%(3조 1751억원), 사모펀드 재투자율은 49%

(9조5804억원)로 나타났다.

예탁원 관계자는 "사모펀드의 경우 재투자자가 쉽지 않은 부동산·특별자산형 비중이 공모펀드보다 높아 재투자율이 낮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규로 설정된 펀드 최초 설정액인 신규 설정액은 31조868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4% 증가했다. 청산분배금은 18조 5404억원으로 18.5% 늘었다. 공모펀드의 신규 설정액은 2조995억원으로 21.1% 감소한 반면, 청산분배금은 1조7432억원으로 2.7% 증가했다.

사모펀드의 신규 설정액은 29조 7690억원, 청산분배금은 16조310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2.7%, 20.5% 늘었다.

공모펀드에선 신규 설정액과 청산분배금 모두 채권·채권혼합 유형에서 크게 늘었고, 사모펀드에선 신규 설정액은 기타 유형에서 대폭 증가했으나 청산분배금은 부동산·특별자산 유형에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관희 기자

(이익배당금 지급현황*)

(단위: 억원, 개)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전년대비
이익배당금	공모	13,000	13,321	20,928	22,583	34,921	66.90%
	사모	111,651	114,410	104,154	121,504	195,522	87.70%
	합계	124,651	127,731	125,082	144,087	230,443	84.20%
펀드수	공모	1,107	755	1,022	906	1,349	32.00%
	사모	7,353	6,903	7,319	7,200	7,792	6.50%
	합계	8,460	7,658	8,341	8,106	9,141	9.60%

*지급일 기준. 모펀드·ETF·외화표시 수익증권 등 제외. 특정 펀드가 다회 이익배당금 지급 시 펀드수 중복 산정 (이하 동일) /한국예탁결제원

중소형증권사, 부동산PF 부담에 전망 '깜깜'

SK·디올투자·케이프투자증권 등
올 상반기 신용등급 전망 하향 조정
구조조정·경영효율화 추진하기도

올들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의 지속으로 수익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중소형 증권사들이 하반기에도 실적 개선을 이루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신용평가는 지난 23일 낸 '상반기 정기평가 결과'와 '하반기 산업별 전망' 보고서에서 증권 업계의 산업전망을 '비우호적', 신용전망을 '부정적'으로 제시했다.

하향 조정 배경으로 부동산 PF 리스크가 꼽히고 있다. 국내 부동산 금융의 경우 브릿지론 뿐만 아니라 본 PF 대출도 사업성이 떨어지면서 지난해 4분기부터 건전성 지표 저하의 폭이 확대되고 있다.

중소형사의 브릿지론 익스포저(위험 노출액) '높음' 비중은 73%에 달해 대형사(34%)보다 2배 높다.

이에 따라 대형 증권사에 비해 고위험 부동산 PF 부담이 크고, 수익구조

가 제한적인 중소형 증권사는 지속적으로 수익성 악화를 겪고 있다.

앞서 나이스신용평가·한국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 등 3개 신용평가사는 올 상반기 SK·디올투자·케이프투자증권 등 3개 증권사의 신용등급 전망을 하향 조정한 바 있다.

나이스신용평가에 따르면 SK증권은 지난 1분기에 130억원의 당기순손실을, 하이투자증권은 64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각각 기록했다.

중소형사들의 실적 회복은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윤재성 나이스신용평가 수석연구원은 "올해 들어 국내의 거래대금이 늘어나면서 위탁매매 부문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증권사를 중심으로 실적 개선폭이 나타나고 있으나 부동산금융을 중심으로 수년간 사업을 확장한 중소형사의 경우 부동산PF 환경 저하로 인해 수익창출력이 크게 훼손됐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이 PF 사업성 평가 점검에 나서면서 충당금 추가 적립에 대한 압박이 높아지고 있는 점도 중소형 증권사의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김예일 한신평 수석연구원은 "신규 PF사업성 평가 기준 도입에 따라 브릿지론과 중·후순위 본PF 중심으로 요주의, 고정이하비율 상승 전망, 업체별 추가 대손부담은 차별화될 것"이라면서 "고금리, 부동산경기 감안 시 비부동산 영업기반 중요도 상승, 포트폴리오 다각화 수준 낮은 증권사는 이익창출력 회복이 더딜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중소형 증권사의 사업환경 악화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일부 중소형 증권사는 구조조정에 들어갔다.

SK증권은 최근 한 달 사이에만 지점장, 기업금융부장, IT본부장 등 임원 16명을 해임했다. 아울러 SK증권은 10개 지점을 폐쇄하는 지점 통폐합 등을 비롯한 경영 효율화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부동산 PF 업황 회복이 시간이 걸리는 만큼 대형사들에 비해 신규 수익 창출 요인도 적기 때문에 중소형사들의 실적 개선을 기대하기는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원관희 기자



키움증권-케이뱅크, 신규 비즈니스 발굴 등 '맞손'

키움증권과 케이뱅크가 신규

비즈니스 발굴 및 플랫폼 사업 확대를 목표로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두 회사는 협약을 통해 ▲신규 고객 유치에 위한 공동 마케팅 ▲플랫폼 MAU 활성화를 위한 서비스 제공 ▲금융상품 크로스셀링 확대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사진은 업무성 키움증권 대표이사(오른쪽)와 최우형 케이뱅크 은행장이 24일 오후 케이뱅크 본사에서 전략적 업무협약을 맺으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키움증권

KB증권, 퇴직연금 수익률 3개 부문 '1위'

DB, DC, IRP 부문서 성과

확정급여형 10.07%, 확정기여형 11.15%, 개인형퇴직연금 13.66%를 달성했다.

KB증권은 2분기 기준 퇴직연금 원리금보장 상품 중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퇴직연금(IRP) 등 3개 부문에서 증권업계 수익률 1위를 차지했다고 25일 밝혔다.

확정급여형에서 4.70%의 수익률을 기록했으며 확정기여형 수익률은 5.25%, 개인형퇴직연금은 5.88%를 나타냈다. 이는 은행, 보험(손해, 생명) 업권별 원리금보장 상품 평균 수익률보다 높은 수치다.

퇴직연금 비원리금 상품 수익률도

김상혁 KB증권 연금사업본부장은 "KB증권은 지역본부에는 영업 담당(RM), 지점에는 연금마스터를 두어 각종 연금 관련 세미나 개최와 추천 상품 공유 등 본사와 지점이 유기적으로 활동하고 있다"면서 "연금 자산은 장기 투자라는 특성을 고려하여 고금리 상품뿐만 아니라 수익률 제고를 위한 최선의 상품을 고객에게 제공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금리 더 떨어지기 전에 가입하자” 6개월 이상 정기예금 ‘역대최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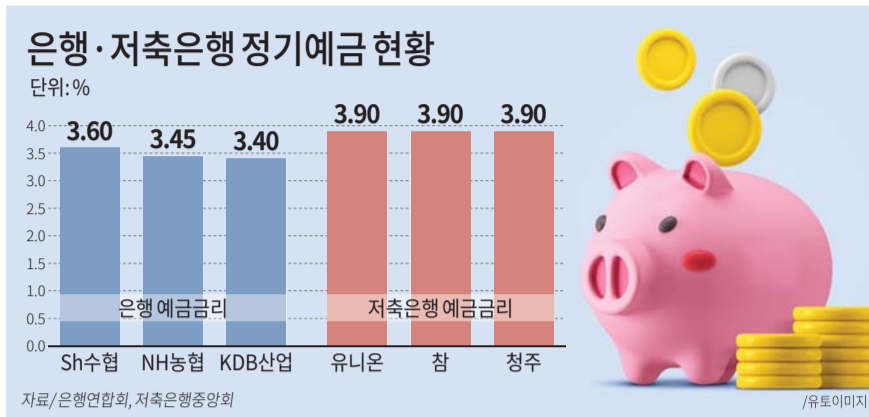
한은, 총 잔액 852조 집계
1년 이상 2년 미만 592조 가장 많아
작년 말부터 정기예금 가입자 급증
2금융권도 이미 4% 상품 사라져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커지면서 6개월 이상을 만기로 한 정기예금 잔액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예금 금리가 더 낮아지기 전에 장기간 정기예금 상품에 가입하려는 고객이 늘어난 결과로 풀이된다.

25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에 따르면 5월말 기준 예금은행의 만기 6개월 이상 정기예금 잔액은 총 852조2138억원으로 집계됐다. 2002년 1월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대다.

예금 잔액은 1년 이상 2년 미만 정기예금 잔액이 592조437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6개월 이상 1년 미만이 196조7770억원, 2년 이상 3년 미만이 32조6108억원, 3년 이상이 30조7823억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지난해 말부터 올해 5월까지 증가세를 보던 6개월 이상 1년 미만 정기예금



은 10.1% 증가해 가장 많이 늘었다. 3년 이상 정기예금은 같은 기간 5.3%, 2년 이상 3년 미만 정기예금은 4.5%, 1년 이상 2년 미만 정기예금은 2.9% 증가했다. 반면 6개월 미만 정기예금은 0.2% 증가에 그쳤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6개월 미만 정기예금은 지난 2022년 말 금리가 더 오를 경우 다른상품으로 갈아타기 위해 증가한 것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감소해 왔다”며 “지금은 금리가 더 내릴 것에 대비해 만기가 긴 상품에 가입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금융권에서도 연 4%대 금리의 정

기예금은 사라진 상황이다.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등에 따르면, 이날 기준 시중은행이 판매하는 1년만기 정기예금(단리) 중 가장 기본금리(우대금리 제외)가 높은 상품은 Sh수협은행의 헤이(Hey) 정기예금(연 3.6%)이었다. NH농협은행의 ‘NH올원e예금’은 연 3.45%, KDB산업은행의 ‘KDB정기예금’은 연 3.4% 금리를 제공했다.

저축은행에서 판매하는 같은 기준 상품 중에서는 유니온·참 저축은행의 ‘e-정기예금’이 연 3.9%를 금리를 제공한다.

/나우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한-체코 ‘핫라인’ 개설... 원전계약 지원

정부, 연내 5조 규모 설비수출 도와
원전 수출선도 산업 육성에 총력전

정부가 체코 원전사업 최종 계약 협상을 밀착 지원하기 위해 한-체코 당국 간 핫라인을 개설한다.

또 제3, 제4 원전수출을 창출하고 연내 5조원 규모 원전설비수출을 지원하는 등 원전을 수출선도 산업으로 육성하는데 총력 지원한다.

정부는 25일 서울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 주재로 제5차 원전수출전략추진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체코 원전사업 후속조치를 논의했다.

추진위는 체코 원전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한국수력원자력이 선정된 것은 정부의 원전정책 정상화와 강력한 원전세일즈 정상외교가 발주국의 신뢰를 확보한 원동력이었고, 한수원과 협력업체, 원자력학계와 연구기관 등이 합심해 노력한 결과로 평가했다.

정부는 이번 성과를 발판으로 원전을 한국의 수출선도 산업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내년 3월까지 체코 원전사업 최종계약이 차질없이 체결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한다. 민관은 한국과 체코 모두에게 상호 호혜적인 결과로 나올 수 있도록 계약협상에 임할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25일 오전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제5차 원전수출전략추진위원회’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계획이다. 특히 정부는 당국 간 핫라인을 개설해 긴밀히 소통하며 협상을 밀착 지원한다.

제3, 제4의 원전수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유망 수출국과의 원전수출 관련 협의에 속도를 내는 한편, 신규원전 건설을 고려 중인 아시아-아프리카 신흥국과도 인력양성, 공동 부지조사 등을 통해 중장기 진출환경을 조성한다.

특히 내년 11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오는 9월 기후산업국제박람회 등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행사를 우리 원전의 우수성을 알리는 기회로 활용하는 등 전방위 홍보활동을 전개한다.

/세종=한용수 기자

산업 공급망 글로벌 탄소규제 대응반 구축

산업부-대한상의-11개 협회 등
‘공급망 탄소중립 얼라이언스’ 출범
탄소데이터 연구 플랫폼 구축하기로

산업 공급망에 대한 글로벌 탄소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민관 합동 ‘산업 공급망 탄소데이터 플랫폼’이 구축된다. 배터리 등 탄소규제 대응이 시급한 5대 업종부터 플랫폼을 구축해 기업간 탄소데이터를 공유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오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대한상의와 자동차·반도체 등 11개 주요 업종별 협회 등과 함께 ‘산업 공급망 탄소중립 얼라이언스’ 출범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산업 공급망 탄소중립 전략’을 발표했다.

EU(유럽연합) 등 주요국의 탄소규제는 제품별 탄소발자국 등 공급망에서 발생하는 전체 탄소배출량의 산정과 감축을 요구하는 형태로 현실화되고 있다. 반면 우리 기업들은 탄소배출

량 산정에서조차 어려움을 호소하는 상황으로, 적시 대응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경쟁력 하락은 물론 수출 차질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산업부는 이번 전략을 제시하고 민관 역량을 결집하기로 했다. 우선 공급망으로 연결된 기업 간 탄소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한국형 산업 공급망 (탄소)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한다. 배터리·자동차·가전·철강/알루미늄·석유 등 탄소규제 대응이 시급한 5대 업종을 중심으로 기업의 탄소데이터를 연결하는 플랫폼을 구축한 뒤, 향후 전체 업종과 전체 산업데이터를 포괄하는 플랫폼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 탄소배출량 산정·감축 사업은 기존 개별기업 중심 지원을 벗어나 수출 공급망으로 연결된 기업군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FTA·통상종합지원센터’를 윈스톱 통합창구로 활용해 글로벌 탄소규

제 관련 기업 애로상담과 정보제공을 지원한다. 특히 대응이 시급한 5대 업종은 별도로 ‘탄소통상 규제대응 협의체’를 구성해 정보 공유 등 업계의 규제 대응을 더욱 세밀하게 지원해나간다는 구상이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글로벌 탄소규제 강화에 따라 기업 현장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 ‘산업 공급망 데이터 플랫폼’이라는 새로운 길을 민관이 함께 만들어가는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체코 원전수출, 무탄소에너지(CFE)이니셔티브 등에서 민관이 팀 코리아로서 힘을 모으고 있듯이, 산업 공급망의 탄소중립 역시 민관이 손을 잡고 이끌어 나가야 할 과제”라며 “‘산업 공급망 탄소중립 얼라이언스’의 도전에 기업인과 전문가들이 적극 참여해 대대적인 산업 혁신의 캠페인으로서 함께 추진해나가자”고 제안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대한전선이 미국에서 케이블 포설을 준비하고 있다.

대한전선, 美서 1900억 역대최대 수주

올해 누적 5200억 신규수주 성과

대한전선이 미국에서 역대 최대 수주 물량을 추가로 확보했다.

대한전선은 미국 판매법인인 T.E.U.S.A가 미국 동부에서 1900억원 규모의 초대형 장기 계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대한전선이 미국에서 수주한 프로젝트 중 가장 큰 규모이자, 해외에서 수주한 프로젝트 중에서도 역대급이다.

대한전선은 이번 수주를 포함해 올해 미국에서만 약 5200억원의 신규 수주고를 올렸다. 북미 진출 이후 최대 성과를 낸 2022년 연간 누적 수주액 4000억원을 반년 만에 크게 넘어섰다.

대한전선은 미국 동부에서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전력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노후 전력망을 신규 전력망으로 교체하는 프로젝트에 138kV, 345kV급의 케이블과 접속재 등 초고압 전력망 자재 일체를 공급한다.

미국의 지중 전력망은 50% 이상이 교체 시기인 40년을 넘어선 것으로 확

인된다. 여기에 AI와 반도체 발전 등으로 전력 사용량이 급증하면서 노후 전력망 교체에 대한 필요성이 크게 확대되는 추세다. 대한전선은 미국 노후 전력망 교체 시장에서 지속적인 성과를 내고 있어, 이번 대형 계약을 통해 추가 수주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을 예상하고 있다.

대한전선 관계자는 “업체 선정 시 기술, 품질, 안정성 등을 까다롭게 검증하는 미국에서 여러 전력청을 대상으로 다수의 프로젝트를 수주 및 수행한다는 것으로 회사의 기술력과 경쟁력을 확인할 수 있다”며 “수년간 북미 전력 시장의 주요 공급자로 자리매김해 온 만큼, 수출을 극대화해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전선은 지난 연말에 뉴욕에서 프로젝트를 수주해 노후 전력망 교체에 특화된 제품과 특허 받은 신기술을 선보였으며, 올해 3월에는 플로리다 지역에서 약 1100억원 규모의 노후 전력망 교체 터키 프로젝트를 수주하는 성과를 냈다. /양성운 기자 ysw@

현대로템, 김포골드라인 증차분 조기투입

당초 계획보다 6개월 앞당겨 운행

김포골드라인 증차 계획이 속도를 내고 있다.

현대로템은 김포골드라인 증차분 총 6편성(12량) 중 초도 편성분이 예정보다 6개월 앞선 지난달 영업 운행에 투입됐다고 25일 밝혔다. 김포골드라인은 지난 2019년 9월 개통된 김포시 첫 노선으

로, 양촌역(김포 한강신도시)과 김포공항역(서울 강서구)을 잇고 있다.

1편성당 2량으로 구성됐으며 운행 최고속도는 시속 80km이다. 김포골드라인에서 시운전을 마친 초도 편성의 경우 애초 계획했던 오는 12월보다 6개월 빠른 지난달 28일 영업 운행이 시작했다. 2·3편성은 다음 달 30일에, 나머지 4·5편성은 오는 9월 30일 운행이 이뤄진다.

지난해 추가 계약한 1편성(2량)은 연내 납품될 예정이다.

현대로템은 오는 9월 말까지 5편성 투입이 완료되면 현재 200%(1명 탑승 공간에 2명이 탑승) 이상인 김포골드라인의 혼잡률은 170% 이하로 내려갈 것으로 전망했다.

열차 운행 간격도 기존 3분에서 2분 30초로 단축되고 출근 시간대(오전 7시~9시) 운행 횟수는 기존보다 10회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양성운 기자

서울 흥대·부산 북항에 창업 허브 ‘한국형 스테이션 F’ 조성

두 곳에 400개 스타트업 등 유치
2026년까지 창업 랜드마크 계획
뜻 장관 “혁신적 설계·신속 조성”

정부가 서울 흥대 인근, 부산 북항 일대를 글로벌 창업 허브인 ‘한국형 스테이션 F’로 조성한다.

‘스테이션 F’란 2017년 설립한 프랑 스 파리의 세계 최대 규모 스타트업 캠퍼스로 1000여개 스타트업에게 입주공간 및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공간이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한국형 스테이션 F’ 조성계획을 발표했다.

서울과 부산에 들어서는 글로벌 창업 허브에는 각각 200곳씩, 총 400개의 스타트업, 벤처기업을 유치해 세계 시장 진출을 노린다.

오영주 장관은 “수도권 창업 허브 선정을 위해 수도권까지 포함해 총 100여 곳을 모색했다. 수도권 지자체 8곳으로부터 후보지역도 받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공매물건 등도 후보에 올랐다. 이를 통해 고른 15곳 정도를 한국개발연구원(KDI)과 심의위원회가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서울 성수동과 흥대 일대가 물망에 올랐는데 흥대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수도권 글로벌 창업 허브는 흥대 인근(조감도)에 조성한다. 공간은 민간 건물을 리모델링해 입주한다.

흥대 권역은 연세대·이화여대·서강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글로벌 창업 허브 조성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중기부

홍익대 등 배후 대학가가 조성돼 있고 거주하는 외국 유학생 수도 1위인 지역으로, 글로벌 인재 공급과 활용에 유리하다.

또한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고 글로벌 상권이 마련돼 국내는 물론 해외 스타트업을 유치하기에 적합한 입지조건을 두루 갖추고 있다.

수도권 글로벌 창업 허브는 딥테크 벤처·스타트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가칭) K-딥테크 타운’으로 조성한다.

이에 따라 글로벌 빅테크기업(엔지니어링), 전문 벤처캐피탈(VC), 액셀러레이터(AC), 국내외 딥테크 벤처·스타트업을 허브로 유치해 아시아 최고 수준의 딥테크 소사이어티를 구현한다. K-콘텐츠와 딥테크 기술 융합을 시도할 수 있는 한국만의 독특한 ‘엔터테크’ 지원 프로그램도 가동할 예정이다.

수도권 글로벌 창업 허브는 올해 말 설계에 착수, 내년 상반기에 문을 열 예정이다. 비수도권의 글로벌 창업 허브는 부산 북항 내 폐창고(조감도)에 조성한

다. 부산 북항 폐창고는 1978년 건축해 보세창고 등으로 사용된 과거 수출주도 산업화의 상징으로, 2026년까지 지역의 창업 랜드마크로 탈바꿈할 계획이다.

부산 북항 인근은 청년·혁신 스타트업 유치에 필요한 상업·문화·공공 인프라 및 우수한 교통 접근성을 갖춰 글로벌 창업 허브로서의 성장 잠재력이 충분한 지역이다.

또한 부산미래성장벤처펀드 1011억 원을 활용해 지역 전략산업(디지털 금융, 스마트 해양 등) 분야 지역 스타트업에 집중 투자한다.

롯데 등 지역 기반대·중견기업과 연계한 개방형 혁신, 일과 놀이를 결합한 워크엔터테인먼트 등 지역 특화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수도권 및 해외 스타트업 유치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부산광역시 이준승 행정부시장은 “부산 북항 일대는 이미 창업촉진지구로 지정해 중앙부처와 별도로 지자체에서 예산을 추가 지원할 수 있는 여지

가 충분하다”면서 “정주여건도 인근에 단지 거주자를 위한 레지던스가 있고 수영·해운대도 차로 10여분 거리에 있어 거주와 출퇴근에도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기부는 글로벌 창업 허브를 구축해 각지에 산재한 딥테크 기업, 투자자, 지원기관들을 한곳으로 모으고 맞춤형 지원을 제공해 딥테크 벤처·스타트업을 본격 육성할 계획이다.

글로벌 창업 허브는 수도권과 지방 양측에서 함께 성장하는 트윈 허브(Twin-Hub)의 형태로 구축한다. 지역에서도 수도권을 거치지 않고 직접 글로벌로 진출할 수 있도록 해 수도권-지역 간 창업생태계 격차를 완화한다는 구상이다.

양 글로벌 창업 허브(Twin-Hub)는 공동 멤버십 및 공동 프로그램 등을 통해 상호 접근이 가능한 연결된 허브로 운영된다. 이를 통해 지역에서도 수도권 인프라와 투자 유치 기회를 누릴 수 있고, 지역 이전을 고려하는 수도권 스타트업은 주저 없이 이전에 나설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오 장관은 “전 세계의 딥테크 기술 패권 경쟁에 대응해 2027년까지 한국형 스테이션 F(글로벌 창업 허브)에 약 400개의 딥테크 벤처·스타트업을 입주할 수 있도록 혁신적인 설계 및 신속한 조성에 나설 것”이라며 “수도권·비수도권 동시 조성해 궁극적으로 아시아 1위 창업 생태계로 도약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동반위·한전KPS

협력사 ESG 지원 선도

동반성장위원회가 한전KPS와 2024년도 ‘협력사 ESG 지원사업’ 참여 협약을 체결했다.

25일 동반위에 따르면 한전KPS는 오랫동안 축적된 노하우와 경험을 바탕으로 국내 발전설비(수화력, 원자력) 및 송변전설비 정비산업을 선도하며 세계 최고의 전력설비 정비 기술을 갖춘 글로벌 기업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한전KPS는 상생협력기금 1억원을 출연한다. 이를 통해 참여 협력사를 대상으로 안전을 중심으로 하는 ESG 교육·진단·현장실사(컨설팅) 등을 지원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산업 공급망 조성을 위해 힘쓸 예정이다.

이 밖에도 발전 정비산업 내 협력사의 ESG 경영 문화 확산을 위해 중소기업 국제표준(ISO) 인증 취득 지원사업, 공공·민간기업 안전 컨설팅 지원 등 국내외 어려운 경영환경 속에서도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다.

/김승호 기자

교원그룹

펫 호텔 ‘키녹’ 론칭

교원그룹이 반려동물 동반 여행객을 위한 펫 프렌들리 호텔 ‘키녹(KINOCK)’을 론칭하며 펫 호텔 사업에 진출한다.

25일 교원그룹에 따르면 ‘키녹(KINOCK)’은 반려동물이 발로 문을 두드리는 모습에서 착안한 이름으로, 사람과 반려동물의 경계 없는 공존과 성숙한 반려 문화 조성이란 키녹의 브랜드 철학과 비전을 함축적으로 담고 있다.

이번 키녹 론칭을 통해 1500만 반려인을 신규 수요층으로 확보하고 가족친화 호텔인 ‘더스위트호텔’과의 시너지로 타깃별 맞춤형 호텔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호텔사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게 됐다.

키녹은 반려동물 동반 특화 호텔로 호텔 전체를 반려동물의 눈높이에 맞춰 설계했다. 반려동물을 위한 다양한 부대시설을 갖추고 있다. 연면적 7000㎡(2120평), 지상 3층, 지하 2층 규모로 기존 ‘스위트호텔 경주’를 전면 리노베이션해 34개 전 객실을 펫 특화 객실로 조성했다.

/김승호 기자



교원그룹 펫 프렌들리 호텔 키녹 전경 조감도.

“프라이빗한 공간에 정숙·쾌적한 승차감”

렉서스, 플래그십 MPV ‘LM 500h’
업무·휴식 등 라이프스타일 소화

렉서스가 타는 순간 완전히 다른 세계로 이끄는 프라이빗한 공간을 선보인다. 그 주인공은 ‘LM 500h’다.

렉서스코리아는 24일 서울 강남구 엔헤이브에서 렉서스 플래그십 MPV인 LM 500h를 선보였다. 이번 모델은 편안한 정숙함과 쾌적한 승차감으로 업무부터 휴식까지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을 소화할 수 있는 렉서스의 마스터피스다.

외관은 렉서스의 디자인의 핵심인

‘스핀들 보디(Spindle Body)’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차체와 매끄럽게 이어지는 전면부의 심리스(Seamless) 타입 그릴은 스타일리쉬하면서 공기역학적 성능을 개선해 준다.

렉서스는 최상의 승차감과 주행감을 위해 노력했다. GA-K 플랫폼을 기반으로 뒤틀림 강성 확보하고, 새롭게 개발된 전륜의 맥퍼슨 스트럿 타입과 후륜 트레일링 암 기반 더블 위시본 타입의 서스펜션으로 안정적인 승차감과 운전 안정성을 극대화했다.

렉서스 관계자는 “해외에서 다른 차

량과 비교할 수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라며 “차량의 승차감도 좋지만 의외로 운전이 즐겁다는 반응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이 차량은 쇼퍼드라이브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 운전자에 대한 우선도가 떨어질 것 같지만 아니다”라며 “운전자들 위해 스티어링, 액셀, 브레이크 등 기본 주행 성능을 철저하게 준비했다”고 전했다.

주행 성능은 2.4리터 터보 하이브리드 엔진을 기반으로 가속감과 풍부한 토크감을 자랑한다.

4인승 로열 그레이드 모델은 48인치



렉서스 디올 뉴 LM 500h.

울트라와이드 디스플레이가 탑재된 파티션을 통해 진정한 퍼스널 모빌리티 공간으로 프라이빗 수준을 높였다. 이그제큐티브 6인승 이그제큐티브 그레이드는 3열 시트에도 슬라이딩과 리클라이닝 기능을 적용했다. /백대성 기자 iunmcs@

시몬스, 티몬결제 4억 상당 제품 배송

소비자 우선...결제 끝난 제품 배송

올해 침대업계 1위에 올라선 시몬스가 티몬발 지급 불능 사태에 이은 PG 사 고객 환불 불가까지 소비자 피해가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를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시몬스 침대는 티몬에서 이미 소비자 결제가 끝난 취급액 4억원 상당의 제품 배송을 전격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유통사와 PG 사 모두 본인들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만 열중하며 결국 가장 큰 피해가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상황에서 나온 결정이라 의미가 크다.

시몬스는 유통사에 대한 티몬의 지급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우선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 여기고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

시몬스 안정호 대표는 “회사가 피해를 입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소비자에게 불편을 전가하는 건 도리가 아니다”라고 전했다. /김승호 기자

손경식 “노란봉투법 입법 중단 필요”

(경총 회장)

우원식 국회의장·경총 간담회 개최

손경식 경총 회장이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경제계의 노란봉투법(노조관계 및 노동관계 조정 법안) 등에 대한 우려를 전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5일 경총회관에서 ‘사회적 대화를 위한 우원식 국회의원·경총 간담회’를 갖고 ‘22대 국회에 드리는 입법 제안’을 전달했다고 25일 밝혔다.

손경식 회장은 “구조적 저성장, 저출산 고령화 문제 등 당면한 과제 해결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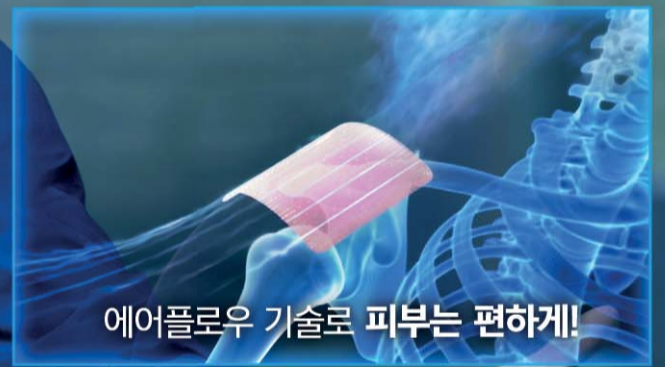
위해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며 “우원식 국회의장이 기업과 노동을 대표하는 기관과 소통하기 위해 경청을 방문한 것에 감사하다”고 인사했다.

이어 손회장은 “우리 노사관계가 강성 노동운동 세력이 주도해 매우 대립적이다”라고 평가하고 “노조법 개정(노란봉투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기업뿐만 아니라 전체 근로자와 국민 모두에게 큰 피해를 줄 것이므로 국회 입법 중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백대성 기자

JEIL 제일헬스사이언스

통증엔 케펜텍으로 Tech 하세요!



케펜텍 Cool

케펜텍 HOT

케펜텍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첨부된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잘 읽고, 의사·약사와 상의하십시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제품 설명서 참조 및 본사 마케팅부(서울 서초구 사평대로 343 제일헬스사이언스(주) Tel. 수신자부담 080-549-0002)로 문의 바랍니다.

광고심의필 : 2021-1584-004200

‘쉬었음’ 청년, 노동시장 유입 촉진 고용 네트워크 전국적으로 확대

고용부 “하반기 채용 시즌 맞아
청년 취업지원 시스템 구축할 것”

전국 대학 ‘집중 취업지원기간’ 운영
미취업 졸업생 특화 시범사업 개시
다양한 일경험 프로그램 확대 박차

정부는 하반기 집중 취업지원 기간을 운영하고 ‘쉬었음’ 청년에 대한 선제적 지원을 강화하는 등 청년구직자 취업 지원에 박차를 가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사진)은 25일 서울북부고용복지+센터에서 열린 지역청년고용 네트워크 관계자 간담회에서 “하반기 채용 시즌을 맞아 청년들이 우수한 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역 어느 기관을 방문하더라도 직업상담, 훈련, 일경험 및 일자리정보 제공 등 필요한 취업지원 서비스가 끊임없이 지원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정식 장관은 “지역 청년고용 네트워크를 전국으로 확산하고, ‘쉬었음’ 청년들의 노동시장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을 강화하겠다”면서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청년들이 취업하여 우



리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서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지역의 모든 청년 고용서비스 기관들이 총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지역 청년고용 네트워크”란 서울북부고용복지센터의 모범사례를 확대·발전시킨 것으로 청년취업지원서비스를 윈스톱으로 제공하기 위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대학 일자리플러스센터 등 지역 내 모든 청년 취업지원 기관들이 참여하는 협의체이다.

정부는 앞으로 이러한 지역 청년고용 네트워크를 전국적으로 확대해나갈 예정이며, 이를 통해 지역청년 대상 맞춤형 지원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은 지역 청년고용 네트워크를 전국에 확산하여 하반기 채용에 대비해 청년 취업 지원에 역량을 집중하고, ‘쉬었음’ 청년에 대한 선제적 서비스를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우선, 지역 내 청년고용 기관 간 네트워크를 토대로 촘촘하게 지원한다. 기관 간 참여자 연계, 프로그램 정보 공

유를 통해 청년들이 어느 기관을 찾더라도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한다.

전국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에선 하반기 ‘집중 취업지원기간(9~12월)’을 지정·운영한다. 지역 유관기관 및 국민취업지원제도, 일자리 수요데이와 연계해 취업박람회, 채용설명회를 적극 개최할 계획이다.

‘쉬었음’ 청년에 대한 선제적 지원도 강화한다.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대졸 청년들이 노동시장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미취업 졸업생 특화 시범사업을 내달부터 개시한다. 10여 개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를 통해 미취업 졸업생을 선제적으로 발굴해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최근 경력·직무 경험을 중시하는 채용시장에서 청년들이 경쟁력을 갖춰 첫 취업에 성공하기까지 필요한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인턴, 프로젝트 등 다양한 일경험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올해 ‘미래내일 일경험’ 지원 인원을 전년도 2만6000명에서 4만8000명으로 늘리고 체류비(월 20만원)를 신설해 지역청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김대환 기자 kdh@metroseoul.co.kr



한국수력원자력이 참여한 ‘임하댐 수상태양광 집적화단지 사업’ 착공식이 24일 개최됐다.

/한수원

한수원, ‘임하댐 수상태양광 사업’ 착공

국내 최대 47MW 규모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 24일 안동시, 한국수자원공사 등과 함께 안동시 독립운동기념관에서 ‘임하댐 수상태양광 집적화단지 사업’ 착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임하댐 수상태양광은 47메가와트(MW) 규모로 다목적댐 내 수상태양광 설비로는 국내 최대 규모다. 수면 위 부력체에 태양 전지판을 설치해 전기를 생산하게 되며, 발전시설은 태극기와 무궁화를 형상화해 설치할 예정으로 주변 경관과 어우러지도록 구축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지역주민이 사업에 참

여해 수익을 공유하는 모델로, 수상태양광 발전소 반경 1km 이내 약 4500명의 지역주민들이 발전수익의 일부를 공유받게 된다.

임하댐 수상태양광 사업은 지난 2021년 12월 국내 제1호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로 지정됐다. 집적화단지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7조에 따라 40MW 이상의 환경친화적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한 구역을 말한다.

윤상조 한수원 그린사업본부장은 “임하댐 수상태양광 사업은 탄소중립 대한민국을 실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국립종자원 “종자·묘 불법 유통 근절”

1537개 종자업체 대상 유통조사
65개소, 종자산업법 위배 행위 적발

허가 없이 식물의 씨앗을 매매하는 등 법을 어긴 의혹을 받는 종자업체 수십 곳이 당국에 적발됐다. 44개소가 형사고발 조치되고 21개소는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국립종자원은 지난 상반기 중 식량·채소·과수 등 농작물 종자·묘(畝)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국내 1537개 종자업체를 대상으로 유통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들 중 ‘종자산업법’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 65개소를 적발했다.

42개소는 종자업 미등록(29개소), 종자미보증(9), 생산·판매 미신고(4)로 검찰에 통보했다. 2개소는 미보증과 생산·판매 미신고로 경찰에 고발했다. 또 21개소에 대해선 품질 미표시(8), 발아보증시한 경과(6), 품질 거짓표시(7) 등으로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탄소융복합소재부품 실증사업’ 본격화

탄소산업진흥원, 16개 신규과제 추진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은 올해 탄소융복합소재부품 실증사업 공모를 통해 선정된 16개 신규 과제에 대한 본격적인 사업 착수에 들어갔다고 25일 밝혔다.

탄소융복합소재부품 실증사업은 국내 탄소소재 및 융복합 부품을 수요처에 적용, 기술사업화를 통해 국산 탄소소재·부품의 수요시장을 창출하고자 마련됐다.

탄소소재를 활용한 부품제작, 품질인증, 신뢰성 검증, 성능평가 등을 지

원한다.

탄진원은 지난 4월 사업 공모를 통해 총 45건의 과제를 접수했다. 지원대상자 자격, 사업계획 등에 대한 서류검토와 함께 기업 현장실사를 진행, 발표평가를 통해 참여기업(기관)을 최종 선정했다.

이번 공모에서 시장창출형 분야 10개 과제, 아이디어 발굴형 분야 6개 과제를 각각 선발했다. 우주항공방산, 미래모빌리티, 연료전지, 환경필터 등 유망 수요산업에의 적용을 위한 실증형 과제가 추진될 계획이다. /김대환 기자

농식품부, 식품업계에 물가안정 협력 요청

국제 원당·원맥 가격 하락세 고려
송미령 장관, 기업 대표 만나 논의

정부가 국제 원당과 원맥 가격 하락세를 고려해 식품업계에 설당·밀가루 가격 인하 협조를 요청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5일 롯데칠성, 빙그레, 삼양식품, 샘표식품, SPC삼립, 오리온 등 주요 식품기업 대표들을 만나 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정부·업계 소통 강화 및 물가안정을 위한 협력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송미령 장관은 “경영비 상승, 전장·고환율 등과 같은 대외 불안정 요인에도 불구하고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식품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로 지난 6월 가공식품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0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말했다.

가공식품분야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 2022년 12월 10%가량 치솟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5일 오후 인천 중구 대한제당 인천제당 공장을 방문해 업계 애로사항 청취 및 설당가격 인하 협조 당부를 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이후 지난해 12월 4.2%, 올해 1월 3.2%, 5월 2% 등 상승폭이 줄었다. 6월 가공식품분야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2%에 그쳤다.

송 장관은 “식품업계가 물가안정 기

/김대환 기자

조에 동참할 수 있도록 업계와 긴밀하고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기업의 애로사항에 대한 해소 방안을 마련하는 등 식품 부담 경감 지원을 지속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식품 원료 할당 관세를 올해 상반기 30개에서 하반기 37개로 확대, 수입 부가가치세 면세(커피, 코코아 등 10% 면세), 제분업계 경영안정자금 지원(4500억원) 등 식품 부담 경감 지원책에 대해 설명했다.

송 장관은 “가공식품은 국민의 일상생활과 매우 밀접하며 소비자 체감도가 높은 분야로 국민들이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요즘, 식품기업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전했다. 이에 식품업계는 “제품 가격 인하, 할인행사 등을 통해 물가안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답했다.

/김대환 기자

임상심리사 시험, 학력 상관없이 응시 가능

권익위, 불합리한 학력 차별 요소 개선

그간 4년제 대학 졸업장이 있어야 응시가 가능했던 임상심리사 시험의 학력 자격 기준이 사라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가기술자격의 불합리한 응시 자격 개선방안’을 마련해 지난 8일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일정한 실무경력 요건을 갖춘 사람이라면 누구나 학력에 상관없이 모든 국가기술자격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된다.

대부분의 국가기술자격은 일정기간 이상 직무경력을 요구하되, 관련 분야 학위가 있거나 교육을 이수하는 등 요건을 충족하면 필요 경력 기간을 줄여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그러나 다른 모든 국가기술자격 시험은 관련 분야 학위가 없어도 직무경력만으로 시험응시가 가능하지만, 임상심리사만 유일하게 학력적 이유 없이 4년제 대학졸업자 이상으로 응시 자격을 제한하고 있었다.

이에 권익위는 국가기술자격 상 불합리한 학력 차별 요소를 개선하기 위해 임상심리사 자격시험에 대해서도 실무경력만으로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관계 부처에 권고했다.

펫 파크부터 전용 테이블 마련 “분조카, 반려견과 함께 즐겨요”

〈분위기 좋은 카페〉

펫 프렌들리 카페 속속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1500만명을 넘어지면서 카페도 반려동물 동반 서비스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반려동물 관련 시장 규모는 매년 성장세다. 최근에는 사료, 의료, 놀이 등 필수 요소를 넘어서는 다양한 분야에서 반려동물 관련 산업이 커지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반려동물 시장규모는 4조 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2027년엔 6조 원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스타벅스코리아는 27일부터 ‘더북한강R점’을 반려동물과 함께 실내 동반취식이 가능한 매장으로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한다. 지난 1월 오픈한 ‘구리갈매DT점’에 이어 두 번째 펫 동반 규제샌드박스 승인 매장이다.

2022년 1월에 오픈한 ‘더북한강R점’은 국내 스타벅스 최초로 반려동물을 위한 펫 파크를 조성한 펫 프렌들리 매장으로, 그동안 매장 콘셉트에 맞춰 반려동물 동반 고객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매장 환경도 적극적으로 개선해왔다. 지난해 11월에는 1층 펫 전용 공간을 기존 100평에서 168평으로 확대한 바 있다.

오는 27일부터는 1층 실내 공간에 반려동물과 함께 음료와 푸드를 즐길 수 있는 28석의 좌석과 테이블, 8석의 반려동물 전용 체어를 별도로 마련해 반려동물 동반 고객의 편의를 한층 높인다. 스타벅스는 이러한 형태의 매장 운영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에서 최종 승인을 받았다.

아울러, 반려동물이 머무를 수 있는 웨이팅 존을 설치하고 펫 포토 디스플레이 존과 다양한 동물의 모습이 담긴 아트 워, 놀이시설 등을 구성해 반려동물과 특별한 추억을 쌓을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1층 야외 공간에도 반려동



지난 1월 오픈한 구리갈매DT점을 방문한 반려견과 고객 모습. /스타벅스 코리아

스타벅스코리아 ‘더북한강R점’ 반려동물 실내 동반취식 매장 운영 구리갈매DT점 이어 두 번째 오픈

커피빈, 펫 프렌들리 매장에 적극 전국 19곳 운영… 펫 MD 상품 출시 할리스·투스덤도 펫 매장 운영 중

물과 앉아 쉴 수 있는 벤치와 웨이팅 공간을 추가로 설치하고 햇빛을 가려주는 파라솔, 테이크아웃 고객을 위한 반려동물 리드 줄 거치대, 놀이시설, 포토존 등을 마련해 고객 편의성을 강화했다.

모두가 편안하게 머무를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매장 1층 전체를 반려동물 동반 고객을 위한 펫 전용 공간으로 운영하며, 음료 제조 공간이 포함된 2층과 일반 고객 공간으로 구성된 3층, 루프탑이 있는 4층은 안전을 고려해 반려동물 동반 출입이 제한된다.

커피빈은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 중 가장 먼저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사업을 위한 규제 샌드박스 실증 특례를 받은 대표적인 펫 프렌들리 카페다.

커피빈은 전국 19곳(4월 기준)에 반려견 출입이 가능한 펫 프렌들리 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펫 전용 간식, 반려동물용 장난감인 노즈워크, 하네스 및



스타벅스 ‘더북한강R점’이 반려동물 규제샌드박스 승인 2호 매장으로 재단장했다. /스타벅스 코리아

파우치 세트 등 산책용품, 유니폼과 모자, 펫 슈즈 등 펫 전용 MD 상품을 적극 출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반려동물 회원제 서비스인 ‘퍼플 펫 멤버스’를 운영, 펫 프렌들리 메뉴 및 펫 전용 MD, 간식 등을 구매했을 때 커피빈 어플리케이션에서 펫 스탬프를 적립한 뒤 현금으로 돌려받는 등 혜택을 제공한다.

할리스는 공덕경의선숲길점, 할리스 제주연북로DI점 등 5곳의 펫 전문 매장을 운영 중이며, 투스덤플레이스는 대구 수성못점에 펫 프렌들리존을 마련했다.

업계 관계자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많아지면서 자연스럽게 함께 출입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한 니즈도 늘었다”며 “카페를 비롯해 호텔, 음식점 등 업계 전반이 펫 프렌들리 공간을 확대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롯데칠성음료, 안유진 모델 ‘레몬진’ 광고 공개

4.5도·7도·9도 총 세가지

롯데칠성음료가 지난해에 이어 가수 안유진과 함께 한 대표 레몬 탄산주 ‘레몬진’의 신규 광고를 공개한다고 25일 밝혔다.

롯데칠성음료는 통레몬을 침출해 더욱 진하고 상큼한 레몬 본연의 맛을 살린 ‘레몬진’의 제품 특성을 가수 안유진의 상큼 발랄함을 통해 표현했다.

광고는 ‘차원이 다른 상큼함! 통레몬 맛있다’라는 콘셉트로 제작됐으며 15일 동안 통레몬을 저온 침출해 더욱 상큼한 레몬진의 맛과 탄산의 청량함을 강조했다. 안유진이 깨끗한 통레몬으로 진하고 상큼한 맛의 레몬진을 만드는 장면과 통레몬 맛을 상큼한 표정으로 표현한 2가지 영상으로 구성됐다.

이번 영상은 롯데칠성음료 공식 유튜브 채널, TV 등에서 공개된다. 작년



롯데칠성음료가 가수 안유진과 함께 한 레몬 탄산주 ‘레몬진’의 신규 광고. /롯데칠성음료

에 공개된 레몬진 광고도 유튜브 누적 조회수 355만 회 이상을 달성하며 소비자의 꾸준한 관심을 받고 있다.

한편 2021년 5월에 출시된 ‘레몬진’은 통레몬을 침출해 상큼하고 진한 레몬 맛을 살린 탄산주다. 도수는 4.5도, 7도, 9도 총 3가지이며, 용량은 355mL, 500mL 2가지로 구성해 다양한 소비자의 니즈를 충족시키고 있다. /신원선 기자



유튜브 영상 제공
YouTube

포카리스웨트 이온워터 상반기 매출 32% ↑

동아오츠카, 6월 매출 145% 신장

동아오츠카는 포카리스웨트 이온워터의 상반기 매출이 전년대비 32% 신장했다고 25일 밝혔다. 6월 한달 매출로만 놓고 봤을 때 145% 신장이라는 엄청난 수치를 기록했다.

동아오츠카 측은 4~5월 맘카페 체험단 캠페인 및 블로그 포스팅 진행으로 이온워터의 월간 검색량이 2만여 건에 달했고 ‘이온음료’ 검색 시 최상단에

노출되며 매출까지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포카리스웨트 이온워터는 물처럼 산뜻하고 가볍게 마실 수 있는 데일리 음료로, 수분과 전해질 보충을 위한 이온음료의 기능은 유지하면서 깔끔하고 부담 없이 마실 수 있는 저칼로리 워터 음료다. 일상 속 수분감 유지를 위해 음료를 섭취하고 싶지만 칼로리를 걱정하는 소비자들을 위한 트렌드 맞춤형 제품이라 할 수 있다. /신원선 기자



“중복, 몸보신 메뉴 골라요”

삼복더위중 두번째 복날인 중복을 맞은 25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를 찾은 시민이 생닭을 고르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1.2억캔’ 필라이트 판매량 압도적 1위

하이트진로, 상반기 발포주 실적 2위 브랜드와 3.3배 이상 판매 격차

하이트진로는 필라이트가 올해 상반기 발포주 시장 압도적 1위를 기록했다고 25일 밝혔다. 시장조사기관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필라이트는 상반기에만 약 1억2000만 캔이 실판매됐으며, 2위 브랜드와 3.3배 이상의 판매 격차를 낸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필라이트는 발포주 구매 비중이 높은 편의점에서 2위 브랜드와 2.7배 이상의 판매 격차를 냈다.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전국 오프라인 채널 중 발포주 판매량은 편의점이 전체 판매량 대비 약 32.5%를 차지했다. 필라이트는 상반기 국내 가정시장 유통채널 편의점, 대형마트 모두에서 각 판매량 1



필라이트 355ml 캔 제품 /하이트진로

위를 차지했다. 하이트진로는 여세를 몰아 필라이트의 브랜드 이미지를 ‘트렌디함’으로 차별화하기 위해 패키지 리뉴얼을 단행한다. 최근 트렌드를 고려해 단순하고 명료한 디자인으로 로고, 캐릭터 등의 주목도를 더 높인 것이 특징이다. 패키지 디자인은 변경된 글씨체와

‘Fresh’를 돋보이게 하는 색상 조합 등으로 필라이트의 상쾌한 청량감을 직관적으로 전달한다. 또, 패키지 하단에 시원상쾌함 등 필라이트만의 장점을 강조했다.

이번 리뉴얼 패키지는 필라이트, 필라이트 후레쉬 등 모든 필라이트 브랜드와 캔과 페트 등 전 제품에 적용되며, 7월 4주차 생산분부터 적용, 시중에서는 8월 초부터 순차적으로 만나볼 수 있다.

한편 하이트진로는 필라이트의 뛰어난 가성비와 품질력, 가정시장 내 확고한 입지를 기반으로 지난 3월 필라이트 후레쉬 생 제품을 출시, 유통시장 진출을 본격화했다. 하이트진로는 고물가 시대 소비자 가격 부담을 낮추기 위해 국내 발포주 최초로 생 제품을 선보였다. /신원선 기자

CJ온스타일, 귀리 등 슈퍼푸드 제품 인기

‘저혈당 다이어트’ 트렌드 카무트 관련 TV라이브 32% ↑

CJ온스타일은 저혈당 다이어트 인기로 슈퍼푸드 관련 제품 매출이 상승세라고 25일 밝혔다. MZ세대 사이에서 저혈당 다이어트가 트렌드로 떠오르면서 혈압 및 체중 관리에 도움을 주는 슈퍼푸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모양새다.

CJ온스타일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TV라이브 카무트 관련 제품 주문액이 50억원을 육박했다. 작년 하반기(7~12월) 대비 약 32% 상승한 수

치다. 카무트는 호라산 밀의 한 종류로 고대 이집트에서 재배되던 작물이다. 풍부한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을 함유해 콜레스테롤, 혈당 개선에 도움을 준다. 당지수가 일반 곡물에 비해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표적으로 토털라이프케어 브랜드 ‘이름’에서 전개하는 ‘발아 카무트 브랜드 밀’이 있다. 이 제품은 상반기 CJ온스타일에서만 20만 팩 넘게 팔렸다. 발아 카무트는 도정하지 않고 통곡물 그대로 짝을 띄워 식이섬유와 셀레늄 등 영양 성분이 특히 높다. /이세경기자 seilee@

유통업계, 올림픽 ‘집관족’ 챙긴다... 대규모 할인행사 돌입

〈‘직관’과 ‘집’이 결합된 신조어〉

**롯데마트 ‘프랑스를 맛보다’ 진행
홈플러스 치킨 등 응원 먹거리 할인
쿠팡 ‘국가대표 응원 기획전’ 마련**



롯데마트 제타플러스 서울역점 품미소에서 프랑스 대사관 관저 셰프 로랑달레가 대왕 크로아상을 선보이고 있다.

파리 올림픽을 앞두고, ‘집관’ 고객을 위한 대규모 할인 행사가 시작된다. 대형 유통업체들이 인기 먹거리와 주류 할인 행사를 내세우며 집이나 휴가지에서 편안하게 경기를 관람하는 집관 고객 잡기에 나섰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마트는 프렌치 델리를 포함해 주요 먹거리를 할인 판매한다. 먼저 롯데마트는 집에서 경기를 보며 같이 곁들여 먹기 좋은 구이류, 주류, 델리 식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선보인다. 25~28일 전 집에서 ‘1등급 한우 등심’을 엘포인트 회원 대상으로 40% 할인 판매한다. 특히 ‘미국산 소프라이름 척아이틀’은 이번주 핫프라이스 상품으로 선정, 행사카드 결제 시 50% 할인한 1990원에 특가로 선보인다. 추가로 ‘NEW 한통 가야아아득 치킨’은 1만990원에, ‘국내산 통족발’은 1만3900원에, ‘큰 초밥’은 1만5990원에 판매하고, ‘아사히’ ‘삿포로’ 등 주요 세계

맥주 20종에 대해 6캔 구매 시 1만2000원에 만나볼 수 있다.

또한 롯데마트는 25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제타플러스점 잠실점을 포함한 전국 30개점에서 2주간 ‘2024 프랑스를 맛보다’를 진행한다. 프랑스 대표 음식을 합리적인 가격에 즐길 수 있도록 준비한 행사로, ‘치킨 프리카세’ ‘라타투이’ ‘버터크라상’ 등 총 40여개 품목을 선보인다. 특히 이번 프렌치 델리와 베이커리의 경우, 프랑스 대사관 관저 셰프인 로랑 달레가 직접 시식하며 맛을 인정

받은 상품이다. 단독 상품인 ‘피카드’ 냉동 상품을 포함해 와인, 디저트류 상품 등도 할인 판매한다.

홈플러스는 오는 31일까지 치킨, 초밥, 간편식, 주류 등 응원 먹거리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먼저 가장 인기 있는 다리와 날개 부위로만 구성한 신메뉴 ‘당당 허브후라이드치킨콤보’를 9990원에 판매하고 구매 시 치킨 무를 증정한다.

마이홈플러스 멤버십 회원이라면 다양한 델리 메뉴를 저렴하게 구매할



쿠팡이 ‘국가대표 응원 기획전’ 열고 ‘집관’ 아이템 50% 할인행사에 나섰다.

수 있다. 25~27일 3일간 푸짐한 용량에 저렴한 가격까지 갖춘 ‘대짜 등심찜 쌀탕수육’과 ‘대짜 여수꼬막비빔밥’은 3000원 할인해 각 1만2990원, 9990원에 내놓는다. 오는 31일까지 ‘홈식탁 매콤간짜장강정/한판짜장강정’과 ‘고백스시 한판새우초밥 20입’은 2000원 할인해 각 1만3990원, 1만5990원에 판매하고 ‘홈식탁 갈비왕오븐치킨’과 ‘홈식탁 한판새우튀김 20마리’는 3000원 할인해 각 7990원, 9990원에 구매할 수 있다.

주류도 저렴하게 판다. 7대 카드 결제 시 와인 전품목 10만원 이상 결제 시 2만원 즉시할인, 위스키 전품목 10만

원 이상 결제 시 1만원 즉시할인을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세계맥주 90여종 5캔 9900원, 병맥주 9종은 9900원에 판매한다.

쿠팡은 대한민국 스포츠팀의 선전을 지원하는 ‘국가대표 응원 기획전’을 다음 달 10일까지 진행한다. 이번 기획전은 매주 새로운 상품을 최대 50% 할인된 가격에 선보인다.

1주차(22일부터 28일까지)에는 TV, 계절가전 등 안락한 집관 환경을 만들어 주는 상품을 구성했다. 2주차(29일부터 4일까지)에는 간식, 안주, 밀키트 등 경기를 응원하며 즐길 수 있는 각종 식품을 판매한다. 와우회원은 추가로 즉시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테마별 ‘응원’ 아이템도 준비했다. 야외 시청을 위한 자동차 액세서리는 물론 스포츠 굿즈, 패션 아이템, 주방용품 등을 테마관에서 살펴볼 수 있다. 대표 상품으로는 ▲쓰임스마일 와글와글 맥주컵 6개+소주잔 6개 세트 ▲플레이힐 레굴러 레굴러 다중롤러 ▲쿠기어드벤처 남아용 국가대표 집업 반팔 반전신 실내 수영복 등이 있다.

/이세경 기자 seilee@metroseoul.co.kr

SK바사, 美 ‘선플라워’ 조건부 지분인수

**200만달러 투자... ‘SAFE’ 체결
백신공정 ‘효모 배양 시스템’ 도입**



SK바이오사이언스 안동 L-하우스 전경.

SK바이오사이언스가 공격적인 투자 활동에 속도를 내고 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미국 바이오기업 선플라워에 200만 달러(약 27억8000만원)를 투자하는 ‘조건부지분인수계약(SAFE)’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SAFE’는 현재 기업가치를 산정하기 어려운 초기 스타트업에 선제적으로 투자하고, 향후 스타트업이 요건을 갖춘 후속 투자를 받을 때 약정된 조건대로 지분 비율을 결정하는 인수 방식이다. 기업가치 산정과 지분 결정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수단으로 알려졌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이번 계약을 통해 선플라워의 기술을 활용한 백신 공정 최적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SK바이오사이언스에 따르면 선플라워는 지난 2018년 설립된 유망 스타트업으로, 항원, 항체 등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단백질 제조 기술인 ‘효모 배양 시스템’을 개발했다. 또 선플라워는 독자적인 소규모 관류식 배양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SK바이오사이언스의 안동 L-하우스 백신 공정에 선플라워의 ‘효모 배양 시스템’을 도입하면 기존 대비 최대 7.배

의 수율 개선이 가능하고, 기존 대비 도즈당 88.7% 수준의 원가 절감을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이 SK바이오사이언스 측의 설명이다.

아울러 SK바이오사이언스는 앞서 지난 6월에는 위탁개발생산(CDMO) 사업 확장도 본격화했다. SK바이오사이언스가 약 3390억원을 투자해 글로벌 수준을 갖춘 위탁생산(CMO) 및 위탁개발생산(CDMO) 전문 회사인 독일 IDT 바이오로지카를 인수한 것. SK바이오사이언스는 전 세계 의약품 시장에서 글로벌 기업들과 다양한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해 생산 역량을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SK바이오사이언스는 기존 백신 포트폴리오를 확대할 뿐 아니라 항암 바이러스, 세포·유전자치료제(CG T) 등 신규 바이오 영역으로 진출한다는 방침이다. /이청하 기자 mlee236@

인벤티지랩, ‘IVL5005’ GLP 독성시험 돌입

(의료용 대마 치료제 후보물질)

유한건강생활 공동연구개발
내년 임상 1상 IND 신청 목표

질 ‘YC-2104’에 대한 장기지속 주사제형을 공동개발하고 있다.

인벤티지랩이 유한건강생활과 공동 연구개발 중인 의료용 대마 치료제 후보물질(IVL5005)의 비임상시험규정(GLP) 독성시험에 돌입한다. 국내에서 재배 및 생산된 의료용 대마 성분으로 GLP 단계 진입은 국내 최초이며, 장기 지속형 주사제와 같은 특수제형으로 적용은 전세계 첫 시도다.

인벤티지랩은 비임상시험수탁기관(CRO)인 바이오톡스텍과 IVL5005 GLP 독성시험 패키지 계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인벤티지랩과 유한건강생활은 지난 달 경상북도 안동시의 ‘지역 유치 캠프 기업 사업화 지원 과제’에 선정돼 유한건강생활이 보유한 의료용 대마 후보물

질 ‘YC-2104’에 대한 장기지속 주사제형을 공동개발하고 있다. 유한건강생활은 초임계유체 기술 기반으로 국내에서 재배된 대마를 추출하고 정제해 고순도 의료용 대마 원료를 제조했으며, 인벤티지랩은 이를 기반으로 임상 후보물질 ‘IVL-5005’를 확보했다. 특히 동물 모델에서의 평가를 통해 한번의 주사로 효력을 1개월 동안 지속하는 약동학적 프로파일과, 이와 연계된 뇌전증 적응증에 대해 발작을 더 안정적으로 억제하면서도 사망개체가 발생하지 않는 결과를 얻었다.

양사는 이번 계약을 체결한 바이오톡스텍을 통해 GLP 독성시험을 진행할 예정이다. 인벤티지랩과 유한건강생활은 공동연구를 거쳐 최종적으로 2025년 임상 1상 시험계획(IND) 신청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세경 기자

**동아제약
‘박카스 블루 웨이브’ 행사**

동아제약이 서평죽을 정조준한 브랜드 캠페인을 전개한다.

동아제약은 오는 30일부터 8월 4일까지 강원 양양 죽도해변에서 ‘박카스 블루 웨이브’ 행사를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동아제약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박카스’와 서평이 만나 만든 새로운 물결이라는 주제로 열린다. 동아제약은 박카스 브랜드를 상징하는 파란색을 활용해 해변 분위기에 맞게 꾸민 부스를 선보이고, 방문객에게 박카스 제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청하 기자

JW바사, 전자동 생화학 분석장비 국내 공급

바이오랩 독점 공급계약 체결

JW바이오사이언스가 국내 생화학 분석·진단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한다. JW바이오사이언스는 중국 진단분석 장비 전문기업 바이오랩과 전자동 생화학 분석 장비 국내 독점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계약을 통해 JW바이오사이언스가 도입하는 바이오랩의 전자동 생화학 분석 장비는 ‘AS-280’과 ‘AS-480’ 2종이다. 해당 제품들은 인체의 혈액에 포함된 각종 성분을 화학적으로

분석해 환자의 질병 유무를 진단하는 장비다. 하위 모델인 AS-280은 한 번에 40개의 검체와 80개의 진단 시약을 장착해 분석할 수 있고, 상위 모델인 AS-480은 120개의 검체와 90개의 진단 시약 장착이 가능하다.

또 이 제품들은 첨단 광학 기술과 신속 반응 시스템을 적용해 검사 정확성과 신뢰성이 높다는 것이 JW바이오사이언스 측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JW바이오사이언스는 자체 개발한 생화학 진단 시약 판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청하 기자

롯데면세점, VIP 초청 ‘위스키 클래스’ 운영

음용법 등 소개... 글렌알라키 굿즈 증정

롯데면세점이 VIP 고객을 초청해 싱글 몰트 위스키 ‘글렌알라키’의 위스키 클래스를 선보였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24일 롯데면세점 명동본점의 VIP 전용 휴게공간인 ‘스타라운지’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출국 예정인 내국인 최상위 고객 총 2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글렌알라키 등 프리미엄 주류를 수입, 유통하는 메타베브코리아가 업계 최고 마스터 디스틸러인 빌리 워커의 철학과 함께 위스키 음용법 및 인기 제품 라인업을 소개하며 전문성을 더했다.



롯데면세점이 지난 24일 롯데면세점 명동본점 스타라운지에서 개최한 ‘글렌알라키’ 위스키 클래스에 롯데면세점 최상위 고객들이 참여했다.

롯데면세점은 클래스에 참석한 VIP 고객에게 당일 한정으로 사용 가능한 PRE LDF PAY와 글렌알라키 굿즈 등 다양한 사은품도 증정했다. /이세경 기자

24654478 2166

제2회 2024년 글로벌디지털초월대상(제품·인재) 공고

-The Age of Edge ACx : AI·클라우드 비즈니스 성공 전략-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SW·ICT총연합회는 ABCDi 첨단기술을 상용화하여
시장점유율 1위 초월제품과 우수인재를 선정·시상하는시상계획을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19일

한국SW·ICT총연합회 회장 조 풍 연

- 시상개요** | 2024년 ABCDi 기술혁신을 통해 상용화한 시장점유율 최고이며 국가 산업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큰 글로벌 디지털 초월제품 및 인재를 선정
- 주 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주 관** | 한국SW·ICT총연합회, 전자신문사, 메트로경제
- 후 원** | 조달청,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한국정보통신기획평가원,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한국재정정보원, 한국인터넷진흥원, 정부정보화협의회, 공공발주자협의회

시상내역	시상 부문	표창	주관·후원기관 표창
	기업	12점	과기정통부장관상 2점 및 조달청장상,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상, 정보통신기획평가원장상,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장상, 한국인터넷진흥원장상, 한국콘텐츠진흥원장상,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장상, 한국재정정보원장상,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회장상, 전자신문사사장상, 한국SW·ICT총연합회장상 등
	개인	3점	

* 상격 및 규모는 변경될 수 있음

자격요건	시상 부문	신청 대상 및 자격	주관·후원기관 표창
	기업	ABCDi 첨단 혁신기술을 상용화 하여 국내·외 시장점유율 1위나 수출 실적이 우수한 초월제품(제품, 서비스, 플랫폼)	장관상 최소 수공 기간 - 개인 3년 - 단체 2년
	개인	첨단 혁신기술을 연구개발 및 상용화하여 산업발전 및 국익 증진에 공헌한 개인	

* 대상자 추천 및 제출서류 등 세부 내용은 「제2회 2024 글로벌디지털초월대상 안내서」 참조

- 신청안내** | 접수기간 : 2024년 7월 19일 ~ 2024년 8월 16일 * 메일과 우편접수는 8월16일 도착분까지만 접수 인정
접수방법 : 메일(kswict@kswict.or.kr) 또는 우편(서울시 서초구 효령로 208, 메타빌드연구소 빌딩 1층 한국SW·ICT총연합회 사무국)

- 시 상** | 2024년 11월 25일 (컨퍼런스 행사 일정에 맞춤)

- 심사절차** | 심사위원회 구성 ▶ 1차 AI 심사 ▶ 2차 전문가 심사 ▶ 최종 심사
- 1차심사 | 제출된 서류의 공고 기준 해당 여부 등 AI심사
- 2차심사 | 1차심사 통과에 대한 전문위원회 심사
- 최종심사 | 과기정통부 공적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장관표창 대상자 확정

당진 수해복구 지원



호반그룹이 대한적십자사 충남지사에 당진시 수해복구 성금을 전달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오성한 당진시장, 김선규 호반그룹 회장. /호반그룹

호반그룹, 성금 1억 기탁

호반그룹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충남 당진시와 시민들을 돕기 위해 대한적십자사 충남지사에 성금 1억원을 기탁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24일 진행된 전달식에는 오성한 당진시장, 김선규 호반그룹 회장, 송종민 대한전선 부회장, 문은수 대한적십자사 충남지회장 등이 참석했다.

충남 당진시는 이달 들어 집중호우로 인해 전동 시장과 학교가 물에 잠기고 도로와 주택 등 기반 시설에 큰 피해를 입었다. 호반건설을 통해 기탁된 이번 성금은 침수 주택과 시설 복구, 당진시민 지원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양상미 기자 smah1@

한국지엠

차량전달 등 현장 지원

한국지엠이 수해 지역 복구를 위해 긴급 구호 차량을 전달했다. 또 임직원 자원봉사를 통해 주민들의 조속한 일상회복을 지원했다.

한국지엠은 지난 24일 부평 본사에서 긴급 구호 차량 전달식을 열고 '쉐보레 브리게이드' 등 긴급 구호 차량을 인천광역시 자원봉사센터에 전달했다고 25일 밝혔다.

수해 지역 복구를 위한 임직원 자원봉사 활동도 함께 진행했다. 한국지엠의 임직원 자원봉사자 40여명은 같은날 집중호우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 충청남도 논산시 성동면에 방문, 수해 농작물을 회수하고 정리했다.

/양성운 기자

현대차그룹 “공사의 길’ 체험해보세요”

‘모빌리티 기술과 양궁의 만남’ 행사 체험존·전시존 마련… 대중화 기여

현대자동차그룹이 양궁의 대중화를 위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양궁 체험 행사를 개최한다.

현대차그룹은 오는 26일부터 8월 18일까지 경기 고양시 현대모터스튜디오 고양에서 활쏘기와 국가대표 선수 훈련 장비를 체험할 수 있는 ‘The path of an archer(공사의 길)-모빌리티 기술과 양궁의 만남’ 행사를 연다고 25일 밝혔다.

행사장은 실제 양궁 경기장을 곡면의 스크린으로 재현한 공간에서 진행되는 ‘양궁 체험존’과 현대차그룹이 개발한 첨단 훈련 장비가 놓인 ‘양궁기술 전시존’으로 구성된다.

체험존에서는 선수가 양궁에 입문해 훈련을 이어가며 국제대회에 참가하는 과정을 몰입감 있게 경험할 수 있다. 실제 국제대회에서 사용하는 70m 거리의 과녁판에 화살을 맞추기 위해 얼마나 큰 노력이 필요한지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포함됐다.



현대자동차그룹 양궁 체험행사장에 전시된 개인 훈련용 슈팅로봇

전시존에는 ‘2024 파리 올림픽’에 출전하는 양궁 국가대표 선수들과 실제 경기를 펼쳐 화제가 된 ‘개인 훈련용 슈팅로봇’과 전 국가대표 강채영·오진혁 선수의 ‘선수 맞춤형 3D 그림’이 전시된다.

현대차그룹은 누구나 재미있고 안전하게 양궁을 체험할 수 있도록 국가대표 활보다 가벼운 입문자용 활을 제공하고, 선수들이 사용하는 가슴·팔 보호대 등 안전장구도 준비했다. 양궁 체험 모습이 담긴 ‘네컷 사진’도 기념품으로

제공한다.

현대차그룹은 1985년 정몽구 명예회장이 대한양궁협회장에 취임한 이래 40년간 양궁을 후원해 오며 세계 최강의 실력을 길러냈다는 평을 받는다. 후원은 아들 정의선 회장이 2005년 협회장 자리를 이어받으면서 국내 단일 종목 스포츠단체 후원 중 가장 오랜 기간 이어지고 있다.

한편 정의선 회장은 ‘2024 파리 올림픽’ 현장을 찾아 선수단을 응원할 방침이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에스오일, 자립준비청년 1억 후원

에스오일이 한국아동복지협회와 함께 서울 마포구 상암동 삼동보이스타운에서 보육원 청소년과 자립준비청년의 취업역량 강화와 지원을 위한 후원금 총 1억원을 전달했다고 25일 밝혔다. 방주완 에스오일 최고재무책임자(왼쪽 두번째) 등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에스오일



SK케미칼-국순당, 친환경 제품개발 MOU

SK케미칼과 국순당이 순환 재활용 소재를 기반으로 주류 용기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25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한 국순당 서울사무소에서 SK케미칼 안재현 대표이사(왼쪽 두번째)와 국순당 배상민 대표이사(왼쪽 세번째)가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SK케미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지난 24일 전주 문화관광작장에서 BC카드, 8개 지자체와 글로벌 및 로컬브랜드 상권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왼쪽 4번째부터)우범기 전주시장, 황미애 소진공 상임이사,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최원석 BC카드 대표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소진공

소진공, 글로벌 상권 프로젝트 가동… “지역경제 활성화”

글로벌 상권 출범식&페스타

8개 지자체·BC카드 협업체계 구축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전국 8개 지방자치단체, BC카드와 손잡고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나선다.

소진공은 지난 24일 전북 전주에서 열린 ‘글로벌 상권 출범식&페스타’에서 BC카드, 8개 지자체와 함께 글로벌 및 로컬브랜드 상권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협약은 지역 소멸 대응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대안인 ‘글로벌

상권 프로젝트’ 출범을 기념하고, 올해 글로벌과 로컬브랜드상권 선정지(8곳)의 존속과 발전을 위해 정부·민간·지자체간 협업체계를 구축을 위해 마련했다.

‘글로벌 상권 프로젝트’는 로컬크리에이터(소상공인)가 중심이 되어 국내·외 다양한 관계 인구를 끌어들이는 상권을 기획·투자·추진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 등이 상권별 특성에 맞는 체류·집객·회유 공간 등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하는 프로젝트다.

앞으로 소진공은 협약을 통해 해당 상권 소상공인을 위해 ▲창업교육, 컨

설팅, 기업가형 소상공인 발굴·육성 ▲상권별 앵커스토어 및 메이커스페이스 구축을 위한 매칭용자·클라우드 펀딩 지원 ▲글로벌 및 로컬브랜드 상권의 지속성장을 위한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등을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소진공 박성호 이사장은 “자영업자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지역 소멸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안이 기업가형 소상공인과 이들이 만드는 글로벌 상권이 되길 바란다”면서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지역경제가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 bada@



조아제약, ‘2기 루키바둑 영웅전’ 성료

조아제약은 지난 24일 한국기원 바둑TV 스튜디오에서 ‘제2기 조아제약배 루키바둑 영웅전’이 결승전을 끝으로 막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결승전에서 한우진 9단(사진)은 허재원 3단에게 132수 만에 백 불계승하며 우승을 차지했다. /조아제약



휴롬, ‘고객가치실현위원회’ 발족

휴롬이 고객가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사내 문화 조성 및 실천을 위해 ‘고객가치실현위원회’를 발족했다. 25일 휴롬에 따르면 기존 CCM TF팀을 고객가치실현위원회로 승격해 운영한다. 휴롬 김재원 대표(왼쪽 5번째)가 고객가치실현위원회 발족식에서 위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휴롬

오늘의 날씨

해돋이 / 05:31 | 해질 / 19:46

7월 26일(금)
음력 : 6월 21일

수도권 날씨

27~33°C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세종대, 엄종화 15대 총장 취임

“세계 최고의 대학으로 도약”

세종대학교 제15대 엄종화 총장이 25일 취임했다. 임기는 2027년 7월 26일까지 3년이다.

25일 세종대 애지헌 교회에서 개최된 취임식에는 최세모 대양학원 이사장, 대양학원 이사진, 산하기관 기관장, 세종대 교무위원 등이 참석해 성황리에 진행됐다.



엄종화 총장은 취임사에서 “애지정신은 진리를 사랑하는 정신”이라며 “오늘날의 진리인 과학을 통해 지식을 넓히고, 혁신을 이루며, 인류 발전에 기여해 세종대를 세계 최고의 대학으로 도약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현진 기자 lhj@

부음

▲채명신 씨 별세, 채규상(SK온 부장)·경실·기령·경숙(원흥초 교장)·경옥(삼일회계법인 전문위원)씨 부친상, 박호종(에이스미트 대표)·김홍·정무룡·이성원(트러스톤 자산운용 부사장)씨 장인상=25일,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23호실, 발인 27일 오전 6시. 02-3010-2000
▲이한갑씨 별세, 정재환(아주경제 편집 부국장)·정하진·정현주씨 모친상 = 25일 오전 6시, 서울 한일병원 장례식장 6호실, 발인 27일 오전 6시40분. 070-4888-1694

대통령과 국민의 경기 체감 온도



이정혁
西村브리핑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3일 경기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 힘' 제4차 전당대회 축사에서 "작년 우리나라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역사상 처음으로 일본을 넘어선데다 수출은 9개월 연속 플러스 성장을 기록했고, 상반기 수출이 9.1% 증가하면서 무역수지 흑자로 돌아섰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글로벌 신용평가사들은 우리 성장률을 앞다퉀 조정하고, 2026년에는 우리 1인당 GDP가 4만달러를 넘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 발언을 받으면 "정치는 몰라도 경제는 잘 돌아가고 있다"고 자화자찬에 가까운 후한 점수를 매기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 평가에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동의할 지 의문이다. 수출을 중심으로 한국 경제의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다지만 내수 침체와 고금리 정책이 장기화되면서 지금 우리 상황이 그렇게 한가롭지만은 않은 상태다. 당장 윤 대통령 발언 이후인 2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분기 경제성장

률을 보면 지난 1분기에 1.3% '깜짝 성장'을 했던 우리 경제가 2분기에는 2022년 4분기 이후 가장 낮은 -0.2%로 집계되며 '역성장'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2분기 '역성장'의 주된 요인은 민간소비와 건설투자 부진이다. 민간소비 증가율은 1분기 0.7%에서 2분기 -0.2%로, 건설투자 증가율은 1분기 3.3%에서 2분기 -1.1%로 떨어졌다. 고금리, 고물가 영향에 소비자들이 쉽사리 식료품 외에는 지갑을 열지 않았고, 건설경기 부진으로 시중에 돈이 돌지 않으면서 체감 경기가 얼어붙은 것이다.

내수 부진 쇼크는 예상보다 골이 깊다. 코로나19 때 매출이 줄면서 한껏 받았던 대출이 자영업자들을 옥죄고 있다. 한은에 따르면 자영업자 314만명의 대출 잔액은 1043조원에 달하고 있으며 대출금리가 1%포인트 오르면 이들의 이자 부담은 7조 2000억원이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인당 평균 이자 부담이 230만원 뛰어오르는 것이다.

그런데도 대출 창구엔 여전히 자영업자들이 많다. 은행에서 소외되면 저축은행 같은 제2 금융권에서 돈을 빌리고, 그래도 급한 사정이 이어질 경우 더 금리가 높은

대출을 찾고 있는 것이다. 올해 1분기 말 2금융권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은 4.18%로 집계됐다. 작년 말의 3.16%보다 1.02%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대출을 갚다 갚다 더 못버티면서 폐업의 길을 선택한 사람들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작년 한 해 폐업을 신고한 사업자(개인·법인)은 98만6487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86만7292명)에 비해 11만9195명 증가한 것으로, 2006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가장 많다.

물가 불안도 여전하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4~5월 연속 2%대 후반을 보였음에도 농산물, 외식 등 생활 물가는 고공행진을 지속하고 있다. 대외적인 변수도 많다. 내수를 진작하려면 고금리 해소가 시급한데 환율 불안 등으로 미국보다 앞서 기준금리를 내리기도 어려운 처지다.

위태 위태한 경제 상황 속에 많은 국민들이 신음하고 있는 중이다. 대통령이나 정부가 "2026년에 우리 1인당 GDP가 4만달러를 넘을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만 되풀이할 것이 아니라 서민이나 소상공인 등을 포함해 대다수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가시적인 정책을 보여줘야 할 때다.

l/jnh@metroseoul.co.kr

박정아는 못 봐도...



김연세
(정책사회부)

때는 3년 전 도쿄. 5세트 12-14로 몰린 절체절명의 위기. 박정아의 스파이크가 일본 진영에 연속으로 내리꽂혔다. KF94 마스크 속 갑갑한 코가 땀 뚫렸다. 16년 전 일본과의 4강전. 부진을 면치 못하던 이승엽의 8회 투런 홈런포. 20년 전 패색이 짙던 문대성의 금빛 돌려차기 한 방. 22년 전 정규시간 2분 여 남기고 작렬한 설기현의 극장골. 그 이전 유남규, 양영자, 최순호, 하형주 등등. 일일이 나열하기도 어렵다.

대한민국은 지난 2020 도쿄올림픽(2021년 개최)에서 1976년 이후 최저인 종합 16위로 주저앉았다. 하지만 여자배구가 선사한 감동의 여운은 오래 갔다.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해 보자"고 외치던 김연경의 입모양이 눈에 아직 선하다. 30년 전 FIFA 미국월드컵 조별리그. 스페인에 전방 0-2로 뒤지던 한국은 서정원의 후반 종료 직전 동점골로 무승부를 만들어 냈다. 내리 두 골 먹고 하프타임 때만 해도 그 누가 최종스코어 2-2를 예상했을까.

스포츠는 이따금 엄청난 분량의 엔돌핀을 준다. 대개 예상치 못한 시점이다 그렇다. 때론 어처구니 없는 실책 탓에 응원하던 이가 스트레스 또한 크게 받는다. 부침도 크지만 이런 맛에 보는 건 아닐까. 국사·세계사와 마찬가지로, 스포츠에도 '가장'은 의미가 없다. 1994 미국월드컵 결승전 승부차기 때 이탈리아의 스트라이커 로베르토 바조가 브라질 골대를 넘기지 않았더라면... 끝내 이겼을까. 2010 남아공월드컵 우승국 스페인. 당시 조별리그에서 스위스에 지지 않고(0-1 이변) 토너먼트 올라갔

더라도... 역사상 첫 우승 가능했을까.

오는 토요일 새벽 2024 파리하계올림픽이 막을 올린다. 우리나라 구기종목은 여자핸드볼을 제외하면 인기종목 축구와 여자배구까지 모조리 본선대회에 진출하지 못했다. 일부 서방 매체는 한국이 양궁, 수영, 높이뛰기 등의 종목에서 기대 이하의 성적을 낼 것이라는 예측도 내놨다. 관찮다. 설사 그럴 예상대로 메달 수가 좀 저조하면 어떤가. 낱고 긴다는 지구촌 베테랑들 간 경쟁이다. 메달 획득은 늘 실력뿐 아니라 운도 따라줘야 하는 법이기에 하늘에 맡기는 수밖에 없을 터. 또 모른다. 골이 깊으면 산이 높다. 기자가 멋모르던 2002 부산아시아게임 때다. 선수촌에서 동료와 담소 나누던 한 태권도 선수가 인터뷰에 흔쾌히 응했다. 그러고는 바로 답했다. "네, 금메달 자신 있어요." 그녀의 패기가 금 못지 않게 값져 보였다.

/kys@

오늘의 운세 7월 26일 (음 6월 21일) http://www.saju4000.com



36년생 자식이 큰 상을 받으니 기쁨이 넘친다. 48년생 행복은 고유한 것이니 내가 만족하면 그만. 60년생 꿈이 있는 사람은 늙지 않는다. 72년생 기차는 달린다 씩씩하게 가던 길을 가자. 84년생 전문가의 조언이 문제해결의 열쇠가 된다.



37년생 자신의 게으름은 후회를 만든다. 49년생 길 떠나려는데 폭풍우가 치는 격이니 잠시 쉬어가자. 61년생 가족 간에도 공과 사는 분명히 따져라. 73년생 모난 돌이 정맞는 법이니 자중하며 지내라. 85년생 기대를 접으니 실망도 없다.



38년생 거물이나 자세를 낮추고 상대를 대하라. 50년생 주머니 속의 송곳처럼 창이 힘이 빛난다. 62년생 풍전등화(風前燈火)라 해도 솟아나다. 74년생 불평보다는 먼저 일을 찾도록 하여 발전시켜라. 86년생 머리만 민다는 일을 그르친다.



39년생 속임수 가능 고대하던 것일수록 잘 살펴야 한다. 51년생 마음이 통하는 사람을 만나 즐거운 하루. 63년생 송사에 휘말릴 수 있으니 말조심. 75년생 가족의 무관심이 오히려 편하다. 87년생 열 개를 뿌리고 그래도 하나를 얻는다.



40년생 입이 자신의 경솔한 행동에 될 일도 안 된다. 52년생 지나간 인연이 늘 주변을 맴돈다. 64년생 상부상조하는 것이 서로에게 이익. 76년생 날씨 탓만 하지 말고 움직여라. 88년생 기쁨과 근심은 동전의 양면과 같으니 마음먹기.



41년생 가까운 바다라도 여행을 해보자. 53년생 일은 쉬운데 사람 관계가 어렵다. 65년생 모든 일은 순서대로 차분하게 행하여야 한다. 77년생 금전 문제로 속상할 일이 있으나 오후에 해결. 89년생 가법계 심호흡을 하고 마음을 비워라.



42년생 과유불급이니 지나친 운동을 삼가고 과식하지 마라. 54년생 오늘은 먹을 복이 많은 날이다. 66년생 가족의 소중함을 느끼고 가정에 충실. 78년생 작은 이익에 연연하지 말고 크게 보고 행동. 90년생 동서남북으로 운이 활짝 열렸다.



43년생 배우자가 내게는 가장 큰 조력자이다. 55년생 뱀띠에게 선물을 받는다. 67년생 재혼문제는 정성력이 흐려지니 다시 더 생각하고 판단. 79년생 운이 상승하기 시작하니 무슨 일든 시작. 91년생 내키지 않아도 웃어야 하니 서글프다.



44년생 좋은 꿈을 얻으려면 별동을 손질해서 놓아야 한다. 56년생 마음을 비우고 새로운 각오로 출발. 68년생 도난당할 수 있으니 문서보관 잘할 것. 80년생 연장자의 조언을 이치로 보아 새겨들자. 92년생 예의 바른 행동이 나를 높여준다.



45년생 앞만 보고 달리는 너무 힘이 든다. 57년생 멀리 있다고 소홀히 대하지 마라. 69년생 과한 것보다 약간 모자란 것이 오히려 낫다. 81년생 열기 위해 땀을 시작하는 지금이 적기. 93년생 기다림은 길고 특별한 만남은 짧고 아쉽다.



46년생 변화의 날이니 특별히 조심할 것. 58년생 진실이 항상 최선의 답은 아니다. 70년생 종로에서 뽕맛고 한강에 가서 분얼이하는 격. 82년생 주식에 빠지는 것도 일종의 도박성이니 돌아보면서. 94년생 잡은 고기도 소중히 여겨야 한다.



47년생 남가일몽(南柯一夢)이라도 다시 시작하자. 59년생 인생은 새옹지마이니 곧 좋은 일이 온다. 71년생 영원한 내 편인 부모님이 있어서 좋다. 83년생 꽃동산에서 즐겁게 노니는 격이니 행복. 95년생 복권에 당첨되면 먼저 복권을 사야.



김상회의 4季 팔은 팔방미인

고소한 빵 맛있는 죽 쫄깃한 떡 살살 녹는 아이스크림 등 같은 음식에 모두 사용하는 식재료가 있다. 이 식재료는 사람이 몸이 아플 때는 역할이 달라진다. 음식의 재료에서 좋은 약의 재료로 변신을 한다. 음식으로도 약으로도 훌륭한 역할을 하는 신비한 곡물이 있다.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고 많은 사람이 이미 즐기고 있는 주인공 바로 팔이다. 팔은 단팥빵 봉어빵을 달콤하게 하고 팔죽과 떡을 감칠맛으로 만들어 준다. 여름철 빙수는 어떤가. 팔이 빠지면 제맛이 나지 않는다. 한방에서는 팔을 적소두라고 부르는데 다양한 질병에 약재로 사용했었다.

팔이 식재료와 약재로 두루 쓰이는 이유는 사람의 몸에 좋은 성분이 다양하게 함유하고 있어서이다. 팔은 비타민의 창고라고 부르기에 손색없을 정도로 비타민이 풍부하다. 티아민 리보플라빈 엽산 니아신 등을 함유하고 있는데 특히 티아민과 엽산의 함유량이 많다. 단백질과 사포닌도 많고 칼륨은 쌀의 10배 바나나의 4배나 된다. 섬유질이 풍부한 것도 특징이다. 팔에 많이 들어 있는 티아민 B군은 사람의 몸에서 세포 대사활동에 없어서는 안 될 성분이다. 피로를 풀어주고 기력이 떨어졌을 때 기운을 북돋워 준다.

풍부한 섬유질은 포만감을 느끼게 해줘서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고 칼륨은 나트륨을 몸 밖으로 배출시켜 주므로 몸에 부기가 있을 때 좋다. 사포닌은 피부의 오염 물질을 없애주는 성분으로 기미를 제거하니 가히 팔방미인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수 없는 팔이다. 보약을 옆에 두는 것과 같다. 팔이라고 하면 누구나 동지팔죽을 떠올린다. 전통처럼 동지에 먹는 팔죽도 좋지만 이제는 팔은 사시사철 언제 먹어도 좋은 음식 재료이다. 항상 가까이 두고 즐기면 건강한 몸을 가꿀 수 있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의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새벽하루

스도쿠365

3X3 �도쿠 X는 가로,세로,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회색 9곳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크리노의 알고리즘을 공개합니다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6	2	8	3		9		7
		9	5				
				6		2	
2	9						
							4 2
	5		4				
9		3		8	2	6	4

7				4	8		1
				6			
3		1	8				
9	2	1			3		
		4				2	5 8
			6	1			2
			8				
4	6	9					3

7	9	2	8	1	9	6	1	6
5	1	1	6	6	9	2	7	8
6	6	8	2	1	7	9	5	9
2	7	9	6	6	1	1	8	9
6	2	9	7	8	1	9	6	6
8	6	1	9	9	1	7	6	2
1	2	8	9	8	6	9	1	7
9	8	7	1	9	2	6	6	1
1	9	6	1	7	6	8	2	9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김승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206 2002년5월28일 제5481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585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올 상반기 뉴질랜드 와인만 날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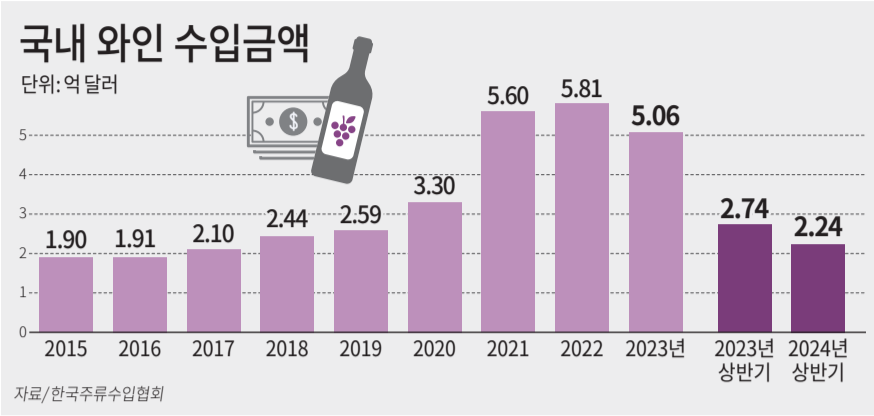


안상미 기자의
Why, wine

와인의 인기가 시들하다는데 판매가 오히려 더 늘어난 와인이 있다. 바로 뉴질랜드 와인이다. 유럽이나 미국, 칠레 와인에 비해 기존 수입 물량이 적다는 점을 감안해도 증가율 48%는 분명 눈여겨 볼만한 수치다. 수입금액으로 보면 호주 와인을 이미 앞질렀다.

다만 와인 시장 전체로는 여전히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다. 경기가 살아나지 않으면서 와인은 물론 하이볼을 등에 업고 살아나는 듯했던 위스키까지 주종을 불문하고 대부분 감소세를 면치 못했다.

한국주류수입협회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 와인 수입 규모는 2억2371만 달러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



교하면 18.3%나 줄었다. 전년 7.9% 감소에서 기울기가 가팔라졌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는 연간 수입규모가 5억 달러를 밑돌 것으로 보인다.

물량 기준으로는 감소폭이 더 확대됐다. 상반기 수입된 와인은 2445만 리터로 전년 동기 대비 21.9% 감소했다.

성장률로 보면 와인 시장의 기세는 완전히 꺾였다.

수입규모는 전년 대비 기준으로 2020년과 2021년에는 각각 27%, 69.6%로

급증했지만 2022년 3.8%로 주춤하더니 작년 -12.9%로 감소세로 돌아섰다. 물량 기준으로는 이미 2021년을 정점으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사실 와인 뿐만이 아니다. 종류를 불문하고 수입 주류의 인기가 다 시들해졌다.

작년 사상 최대를 기록했던 위스키 수입량은 상반기 1266만 리터로 전년 대비 24.9% 급감했다. 수입 주류 가운데서는 맥주 정도가 물량 기준 감소폭 9.2%로 선방했다. 계절적으로 여름 성수기를 앞

두고 물량을 쟁여놓는 시기임을 고려하면 수입 맥주 역시 신통찮은 수치다.

한 업계 관계자는 “하이볼 인기가 아직 남아있지만 저가 리큐어 정도를 제외하고는 주종 대부분의 수입이 줄었다”며 “업장 쪽에서 소비가 워낙 침체됐다고 토로하는 상황으로 당분간 이런 분위기가 이어질 것”이라고 전했다.

와인 수입이 줄었기는 한데 국가나 와인별로 보면 다소 흥미로운 부분이 있다.

국가별로는 뉴질랜드 와인의 수입이 유일하게 늘었다. 수입 규모로 보면 올 상반기에 전년 동기 대비 31.5% 늘어 호주를 앞질렀다. 프랑스와 미국, 이탈리아, 칠레, 스페인에 이어 6위로 올라섰다. 수입량 기준으로는 전년 동기 대비 48.3%나 증가했다.

레드와인이 수입규모 기준으로 22.8% 줄어 감소폭이 가장 컸고, 화이트 와인은 8.7% 감소에 그쳤다. 화이트 와인의 비중이 절대적인 뉴질랜드 와인이 인기를 끌었다는 점과 연결해 볼 수 있다.

와인 업계 전망은 예상보다 긍정적이다. 뉴질랜드 와인처럼 팔리는 상품은 또 잘 팔리니까 말이다. 바뀌는 와인 소비 트렌드에 따라 좀 더 고급화하고, 한국 소비자의 입맛을 사로잡을 와인 찾기가 한창이다.

국내 와인 수입사 가운데 유일한 상장사인 나라셀라는 올해 1분기보고서를 통해 “2022년 기준 한국의 인당 와인 소비량은 1.9병으로 OECD 국가들 대비 와인소비량이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며 “여전히 향후 시장 성장에 대한 잠재력이 높다”고 평가했다.

나라셀라는 또 “특히 와인시장은 하방경직성으로 인해 한 번 높은 등급의 와인을 맛 본 이후부터는 더욱 높은 등급의 와인을 찾는 특성이 있다”며 “실제 중고가 주류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내 와인시장의 성장 가능성을 고려할 때 와인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증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smahn1@metroseoul.co.kr

주말은 책과 함께

“인생의 단조로움을 극복할 방법”

“나는 원하지 않는 행동을 하고, 가질 수 없는 것을 꿈꾸면서 나의 인생을 걸레질한다. 도시의 정지한 시계처럼 부조리한 나의 인생을. 연약하지만 확고한 감성이, 길지만 자의식 강한 꿈이 모호한 나의 특권 전반을 창조한다”

포르투갈 출신의 시인 페르난두 페소아의 문장들은 내면의 얼어붙은 바다를 깨는 도끼와도 같다. 파블로 네루다와 함께 20세기를 대표하는 시인으로 꼽히는 그는 생전 70개가 넘는 이명(異名)으로 작품을 발표했다. ‘불안의 책’은 페르난두 페소아가 ‘베르나르두 소아레스’라는 이름으로 약 20년간 쓴 일기를 묶은 것으로, 그가 남긴 유일한 산문 작품이다.

페소아는 리스본의 선술집과 레스토랑, 거리에서 만난 사람들을 예리하게 살펴보고, 그들에 대한 관찰 일지를 토막글로 적어 놓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은 바로 이런 어리석음 속에 지혜가 있다는 것이다” 레스토랑의 요리사를 주의 깊게 관찰하던 페소아는 그가 일상을 살아내는 모습에서 인생의 단조로움을 극복할 방법을 깨닫는다.

40년 넘게 주방에서 하루를 보내고 있는 요리사는 잠을 매우 적게 잔다. 그는 매번 고향에 갔다가, 망설임 없이 다시 돌아온다. 조금씩 돈을 모아두지만, 쓸 생각도 없다. 광장도, 극장에도 가보지 않았다. 그것은 그 인생의 외떨어진 발자취 속에서나 볼 수 있는 광대 짓이다. 페소아는 조리대 반대편으로 몸을 숙이면서 그가 짓는 미소는 위대하고, 엄



불안의 책

페르난두 페소아 지음/김효정 옮김/까치(까치글방)

숙하며, 흡족한 행복을 말해준다고 이야기한다. 그는 꾸미지 않으며, 그럴 이유도 없기에 그가 이런 행복을 느낀다면 정말 그 행복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페소아는 단언한다.

페소아는 “인생이 본질적으로 단조롭다면, 그 사내가 나보다 더 많이 단조로움을 피하고 있다”며 “행복은 확실히 그의 것이다. 존재에 변화를 줄 수 없는 그야말로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는 사소한 사건이 생길 때마다 경이로움을 느낀다”고 밝힌다.

단조로움, 지루하게 비슷한 똑같은 일상, 차가 없는 오늘과 어제를 경험하고 있는 이들에게 페소아는 존재의 변화가 없을 때까지 존재를 단조롭게 만들라고 조언한다. 가장 사소한 것이 흥미로운 일이 될 때까지 하루하루 감정을 이완하다 보면, 오직 감각만으로 영혼은 슬픔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고 그는 말한다.

248쪽. 1만2000원.
/김현정기자 hjk1@

지도로 보아야 보인다

에밀리 오브리, 프랭크 테타르, 토마 앙사르 지음/이수진 옮김/사이

우리가 발 딛고 사는 곳을 이해하려면 사진이나 드론보다는 지도로 세상을 보는 것이 더 낫다. 지도에는 지정학적 격변에 관한 이야기가 고스란히 담겨 있기 때문이다. 지도를 펴면 러시아가 왜 이렇게 우크라이나에 집착하는지, 이미 거대한 영토를 가진 중국은 왜 주변국들과 영유권 분쟁을 일으키며 팽파먹기에 목을 매는지, 말리는 왜 사헬 지역의 모든 고

통을 감당해야 하는지, 북한은 왜 핵무기를 ‘최후의 보루’로 여기는지, 왜 멕시코가 미국의 주요 마약 공급 국가가 될 수밖에 없었는지, ‘세계의 경찰’을 자처했던 미국은 어쩌다가 지구촌 왕따로 전락했는지를 알 수 있게 된다. 아시아, 유럽, 중동, 아메리카, 아프리카 오대륙, 28개국의 지정학적 분쟁과 이슈를 다룬 책.

274쪽. 2만98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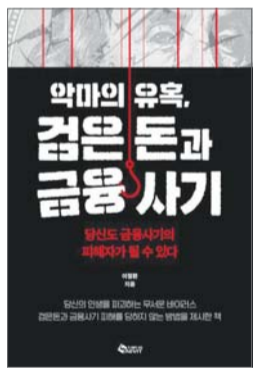
악마의 유혹, 검은돈과 금융사기

이철한 지음/세빛

새로운 금융 기법과 금융상품이 쏟아져 나오며 금융사기 수법이 천태만상 다양해지고 있다. 책은 폰지 사기와 주가 조작, 대출 사기와 같은 고전적 수법부터 암호 화폐, 파생 상품, 피싱(phishing)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기의 형태를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독자들이 눈 뜨고 코 베이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책에 따르면, 최근 기승을 부리는 범죄

유형으로는 사칭 계좌를 통한 리딩방 사기와 상호 간의 신뢰 관계를 이용해 뒤통수를 치는 로맨스 스캠 등이 있다. 책은 사기 범죄를 예방하려면 선진국 수준으로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한다. “사회적 신뢰를 손상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엄정한 사회적 제재가 내려져야 사기 범죄를 막을 수 있다”고 저자는 말한다.

268쪽. 2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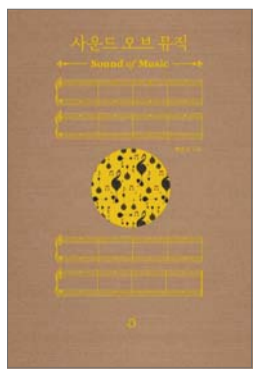
사운드 오브 뮤직

박은지 지음/디페랑

책은 물리학과 생리학, 수학과 천문, 철학 등의 영역을 두루 경유하며 소리의 역사를 살핀다. 저자에 따르면, 피타고라스는 음악의 논리를 수로 체계화한 인물이다. 그는 소리를 발생시키는 물체의 진동 원리를 발견해 연구했고, 이를 수학적 비율로 세세히 설명해 냈다. 피타고라스는 음의 높낮이가 수적 비율로 해석될 수 있으며, 특정 음 관계가 조화

로운 소리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수와 음의 비율 관계로 증명했다. 케플러는 기하학적인 형태와 물리적 현상에서의 음악적 화음과 조화를 연구했다. 그는 기하학적 음계를 산출하기 위해 정수비를 계산했으며, 천문학적 조화를 음악적 관점으로 설명했다. 인류가 오랜 역사 동안 소리를 어떻게 해석해 왔는지 밝히는 책.

352쪽. 3만2000원.



비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美 하원, 트럼프 암살 시도 조사 TF 압도적 찬성 가결 /사진 뉴시스
▲ 美 바이든 “새 세대에 햇볕 넘겨줘야... 나라를 통합하는 최선의 길”

▲ 피치, 우크라 신용등급 ‘C’로 내려... 28조원 채무조정 우려 반영
▲ 中화웨이, AI·수학·물리 천재 채용... 올해 최대연봉 약 4억원



▲ 中, 창정10호 로켓 3단계 성공 /사진 뉴시스
▲ 日혼다, 중국서 내연기관 차량 생산 능력 30% 감축



펫파크·전용테이블
분위기 좋은 카페
반려견과 함께 가요
너



Life

유통업계
파리올림픽
'집관족' 공략
L2



모양에 '한입' 추억에 '한입'... 공통 옷 입은 최애반찬

메가히트 브랜드 탄생스토리

하림 '용가리 치킨'

80년대생에게는 추억의 도시락 반찬으로, 요즘 어린이들에게는 최애반찬, 간식으로 잘 알려진 치킨너겟이 있다. 바로 하림의 '용가리 치킨'이다.

성인들에게는 동심을 떠올리게 하고, 아이들에게는 공통 모양의 캐릭터를 활용해 흥미를 유발하는 용가리 치킨은 1999년 하림에서 출시된 후 25년째 사랑받고 있다.

당시 하림이 코미디언이자 영화감독인 심형래가 제작한 영화 '용가리'에 투자를 결정하면서 용가리 치킨이 탄생하게 됐다.

김홍국 회장과 실무진들은 새로운 치킨 너겟의 맛과 식감, 공통 모양 구현까지 고민하며 제품 개발에 나섰다.

어린이 밥 반찬 또는 간식으로 출시하는 제품이다보니 싼 원료보다는 비싸고 좋은 원료를 사용했으며, 모양과 식감에도 특히 신경썼다. 비타민과 갈슘, 오메가3(DHA·EPA) 등의 성분을 더하고 식품첨가물은 줄였다.

바삭한 식감을 위해 국내의 다양한 빵가루로 실험했으며 그 가운데 캐나다에서 직수입한 진짜 빵으로 만든 빵가루를 제품에 사용하게 됐다.

용가리 치킨은 신선한 닭가슴살과 닭다리살을 배합해 반죽하며 이후 5가지 공통 모양(티라노사우루스, 브라키오사우루스, 트리케라톱스, 스테고사우루스, 파라사우롤로푸스)로 찍어내는 단계를 거친다. 이어 튀김옷과 빵가루를 입히는 도포 과정, 고온에서 튀겨지고 한 번 더 구워내는



25주년을 맞아 선보인 '점보용가리 치킨'



하림 용가리치킨



용가리떡갈비



용가리돈까스



용가리맵

/하림

8·90년대생 추억의 도시락 반찬 맛·식감·모양으로 25년째 사랑받아

신선한 원료, 5가지 모양으로 찍어내 떡갈비, 돈까스 등 키즈식품으로 확장

기업·유튜버와 협업하며 선호도 올려 25년 맞아 '점보 용가리 치킨' 출시 용가리 콘셉트 맞춘 '불 비빔면'도

과정을 마치면 영하 35도 이하 온도에서 급속 냉동된다.

영화 개봉과 함께 출시된 '용가리 치킨'은 전국 유통점에서 큰 인기를 끌며 하림의 육가공 대표 제품으로 자리매김했다.

올해로 출시 25주년을 맞은 '용가리 치킨'은 하림 대표 제품으로 자리를 잡으며, 현재까지도 남녀노소 모두에게 높은 인기를 얻고 있다. 올해 5월까지 공통 모양 너겟 마리 수로 17억 마리 이상 판매됐다. 이는 한 줄로 세웠을 때 지구 약 4바퀴를 돌 수 있는 정도다. 특히 코로나 시즌 이후 더 큰 성장을 가져왔다. 지난 2022~2023년 평균 성장률은 20% 이상으로 나타났다.

'용가리 치킨'은 지난 2014년 기준에 선보이던 용가리 캐릭터를 보다 귀엽고 친근하게 바꾸기도 했다. 새롭게 디자인된 용가리 캐릭터는 어린이들 눈높이에 맞춰 재미를 더했다. 2019년에는 패키지 디자인 변경을 시작으로 좀 더 캐릭터와 타겟에 집중하면서 키즈 식품 브랜드로의 방향성을 설정

해 확장해나가고 있다.

하림은 '용가리'의 꾸준한 인기로 힘입어 '용가리'를 키즈 반찬 브랜드로 확장시켜 나가고 있다. 2021년, 2022년 '용가리 떡갈비'와 '용가리 돈까스'를 출시한 데 이어 지난해 동그랑땡과 비슷한 식감의 '용가리 맵'을 선보이는 등 아이들의 흥미와 영양을 고려한 제품을 잇따라 내놓으며 호응을 얻고 있다.

'용가리 맵'은 돼지고기·양파·당근·양배추·대파·부추 등 신선한 국내산 재료로 만들어 더 안심하고 먹을 수 있다. 특히 야채를 잘게(3mm) 다져 채소에 거부감을 보이는 아이들도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도록 했다. 냉동상태의 제품을 기름 살짝 두른 프라이팬 혹은 170~180℃로 예열한 에어프라이어에 5~6분 정도 익히면 풍부한 육즙과 부드러운 식감의 '용가리 맵'을 맛볼 수 있다.

제품 출시와 함께 에듀테인먼트 콘텐츠 전문 기업 플레이큐리오와 협업해 '용가리 AR*증강현실' 카드'를 제작하기도 했다. 공통 이미지와 설명을 담은 카드는 총 16종이다. 플레이큐리오 사파리 앱을 다운로드한 뒤 휴대폰 카메라로 공통 사진을 비추면 공통이 움직이는 실감 나는 3차원(D) 이미지와 생생한 소리도 경험할 수 있다. '용가리 AR 카드'는 '용가리 맵' 제품에 랜덤으로 한 장씩 들어있다.

지난 6월에는 출시 25주년을 맞아 크기를 8배로 키운 '점보 용가리 치킨'을 선보였다.

'점보 용가리 치킨'은 크기가 커진 만큼 두께도 40% 더 두툼해져 식감이 풍성하다. 바삭하고 담백한 오리지널 용가리 치킨

의 맛을 그대로 살렸다. '점보 용가리 치킨'은 CU 편의점 즉석조리 코너에서 판매 중이다.

어른의 입맛을 공략하기 위한 제품도 선보였다. 어린 시절의 추억을 불러일으키는 용가리 콘셉트와 화끈하게 매운 맛을 살린 '용가리 불 비빔면'을 출시한 것.

제품은 칼칼하게 매운 청양고추와 향긋한 매운맛 고추 하바네로를 사용해 용가리가 입에서 내뿜는 강력한 불처럼 화끈하게 매운 맛을 담았다.

면발은 하림의 특제 닭육수로 반죽해 탱탱하고 쫄깃한 식감을 선사하며 비빔 소스와 완벽한 조화를 이룬다.

기호와 상황에 맞게 다채로운 맛으로도 즐길 수 있다. 차갑게 먹는 것이 가장 맛있지만 따뜻하게 먹어도 별미이며, 물 양을 조절해 꾸덕꾸덕하거나 촉촉한 맛 등 취향에 맞게 먹어도 좋다.

하림은 소비자의 다양한 입맛을 사로잡기 위해 제품 출시는 물론, 키즈 유튜버들과 함께 협업하며 '브랜드 콘텐츠'들을 제작·송출해 좀 더 소비자들과 가까워질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으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하림 마케팅팀 관계자는 "맛있는 밥 반찬이자 영양간식으로 폭넓은 세대에 사랑받는 용가리 치킨으로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하고자 다양한 제품 개발을 시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좋은 먹거리로 고객에게 받은 사랑을 보답하겠다"고 전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김하성, 워싱턴전 2볼넷 3득점... 팀승리에 힘 보태
▲MLB 보스턴, 코라 감독과 3년 연장계약...총액 302억원 /사진 뉴시스

▲김민재, 바이에른 뮌헨 주장 완장 착용...친선전 대승 견인
▲풋 슈퍼컴퓨터, "한국 금메달 5개·종합 18위 예측"



▲프로농구 정관장, 유럽리그 출신 마이클 영 영입
▲홍명보 감독, 유럽 출장 마치고 귀국... "좋은 미팅이었다" /사진 뉴시스



세상을 바꾸는 금융

꿈을 향한 질주 국민이 응원할게

호흡을 참아가며
속도를 높여 준 동료들 위해
마지막 주자라는 부담감을 이겨내고
수천 번 뛰어들었을 대한민국 남자 계영팀

한국 신기록 3회 경신을 넘어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갈 이들의 힘찬 질주는
올여름, 더 눈부시게 빛날 것이기에

대한민국 남자 계영팀의 멈추지 않는 꿈을
국민 모두가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대한민국 1등을 넘어
Korea Best
KB금융그룹



KB금융그룹은 수영, 기계체조, 배드민턴 등
대한민국 스포츠의 발전을 함께합니다

계영 국가대표 수영선수 황선우 · 김우민 · 이호준 · 양재훈 · 이유연 · 김영현

***b KB 금융그룹**